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8호 HYUNBULNEWS.COM 2025년 2월 12일(음력 1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항상 봄과 같을지이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춘을 맞아 사중에 입춘 휘호 '惟願吾家四季如春(유원오가사계여춘)'을 내렸다. 휘호에는 '오직 원하옵건데 우리집 사계절이 항상 봄과 같이지이다'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에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는 "오늘 밤 편히 쉬고 싶거든 바로 지금 한생각 쉬어 버리세. 따스한 봄바람 아름다운 꽃향기 내 마음 봄 향기 눈가에 미소 피네"라는 찬(讚)을 남겼다.

아이돌부터 드라마까지 불교, 미디어를 사로잡다

블랙핑크 제니 신곡 'ZEN'서
불교적 가사 · 상징 해석 '화제'
아이브 장원영 예능서 추천한
'초역 부처의 말' 서점서 열풍
"불교 향한 청년층 관심 '폭발'
미디어 부문에 그대로 투영돼"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유명 아이돌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ZEN〉부터 아이브 장원영이 유명 예능에서 추천한 불서 〈초역 부처의 말〉의 품귀현상까지. 최근 미디어에서 불교 관련 소재가 연일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불교를 향한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미디어에도 반영됐다는 방증이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 가수 제니는 1월 25일 유튜브 채널 '제니(JENNIE)'에서 신곡 〈ZEN(젠)〉을 발표했다. ZEN은 '선(禪)'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본질을 깨우치는 불교 사상을 뜻한다. 실제 〈ZEN〉의 가사와 뮤직비디오에는 '공(空)' '무아' '번뇌' '명상' '연꽃' 등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제니는 지난해에도 불교의 진언(眞言)을 뜻하는 〈Mantra(만트라)〉를 발매해 주목받은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제니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ZEN〉의 영어 가사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가사 분석 영상 등에 따르면, 가사에서 'Fire aura, quiet chatter. Shoot, shoot, shoot, I make them scatter. They can't move my matter(불타는 깨달음(아우라), 은밀한 속삭임. 총성을 울려라, 나는 그들을 흔드니. 그들은 나의 본질을 흔들지 못하리라)'에서 'Fire aura'는 명상하며 의식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깨달음 혹은 알아차림을, 'quiet chatter'는 명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의미한다. 또한 번뇌가 '본질'을 움직일 수 없다는 가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깨닫는 사상인 선(禪)을 드러내고 있다.

제니의 신곡으로 불교를 접하게 된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불교의 '선'을 제목으로 하고 가사에서도 불교적 내용을 담은 제니의 신곡 〈ZEN〉에 압도 당했다" "불교책을 읽어봐야겠다" "진짜 살다보니 선불교를 소재로 한 대작을 볼 줄이야" "제목에서 불교 느낌 가득해서 너무 좋다. 고요하고 영적인 느낌" 등 호평을 쏟아냈다.

아이돌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1월 15일 유명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언급한 불서 〈초역 부처의 말〉도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초역 부처의 말〉은 일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저서로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위로를 전하는 '힐링 불서'다.

장원영은 해당 방송에서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MC 유재석의 질문에 〈초역 부처의 말〉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원영은 "책에서 '집착하지 마라'는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다. 만사에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자꾸 집착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책을 추천했다.

방송 직후 책 판매량은 급증했다. 방송이 나간 2주간(1월 15일부터 29일까지) 판매량이 전월 대비 약 29배(2829.9%) 올랐고, 2월 2일 기준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비롯해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며 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입증했다.

인기 드라마에서도 불교를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청률 13.8%를 기록한 화제의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는 격무에 지친 직장인이 불교를 통해 힐링하는 모습이 나온다. 올해 1월 방영된 1화에서 직장 상사의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서미애(이상희) 이사'는 방에서 혼자 〈반야심경〉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또 이직을 두고 걱정이 많은 양호진(권혁) 팀장이 생각을 정리할 때마다 찾는 장소로 '사찰'이 등장한다.

이처럼 불교가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불교에 대한 대중의 높은 호감도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가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는 템플스테이 등 불교를 향한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불교가 젊은 세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파악한 젊은 작가와 미디어 종사자들이 불교를 방송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불교를 알아갈 수 있어 전법·포교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다만, 불교계에서는 이 화제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자를 배출하고 신행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3면〉

동국대 불교대학생 등 행자교육 과정 간소화되나

출가장려특위, 2월 4일 3차 회의
출가 과정서 중도 이탈 방지 기대
교육원에 계단위 등과 협의 요청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 스님, 출가장려특위)가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 군승 희망 동국대 4학년 학생, 출가 연수 또는 사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불자가 출가할 경우 행자교육 과정을 간소화 해주는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출가 과정의 부담으로 인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가로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출가장려특위는 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군승 자원 확보를 위한 종법 개정안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등 출가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정범 스님은 "매년 동국대 불교대학에는 일반 학생 50명이 입학한다. 그 가운데 출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1~2명으로 극히 적다"며 "4년간 불교를 배우고 익힌 인재들을 출가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도 소년출가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행자교육과정 면제를 언급하며 군승을 희망하는 동국대 4학년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 스님은 "동국대 4학년 군승 희망자들은 이미 염불, 습의, 법문 등 교육을 거쳐 발심출가로 임관했다"며 "(교육 때문에) 마음 내지 못하는 이들이 군승으로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출가 기간 합산 1년 이상일 경우 행자교육과정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월정사, 봉녕사 출가학교 등 사찰에서 실시하는 출가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종회의원 법해 스님(진관사 주지)은 "한국불교 미래와 사찰 운영에 출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단위 사찰에서도 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통일된 프로그램 구축과 법 개정,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한 출가장려특위 위원스님들은 행자교육 조정을 위해 계단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교육원에 요청했다.

출가장려특위는 이날 군승 자원 확보를 위해 임관을 희망하는 동국대 4학년 학생이 2학기 때 취업계를 낼 수 있도록 교육원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해당 사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동국대와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은퇴출가자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은퇴출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청소년 출가자 확대를 위해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불교 관련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설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진우 스님 "업장소멸로 마음 평안에 이르길"

1월 31일 조계사 정초기도 입재서
마음 속 분별 멈추고 욕심 줄이면
선업을 짓는 선순환에 이르게 돼
"선명상 실천으로 올해 평안하길"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3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정초기도 입재법회 법사로 나서 선업을 쌓아 평안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평안하려면 업을 줄여야 합니다. 업을 줄이려면 선업을 지어야 하죠. 그럼 자연스레 나쁜 일이 줄고, 모든 일에 만족하게 되어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다툼도 사라져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3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정초기도 입재법회 법사로 나서 선업을 쌓아 평안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모순이 넘치는 사바세계에서 평안하려면 '업장(業障)'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업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이 많고 적은 사람은 편안하다. 부처님은 업이 전혀 없으시다"며 "이에 부처님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매일이 평안하시다. 이를 두고 우리는 '중도' '열반' '삼먁삼보리' '견성성불', 즉 깨달음의 경지라고 한다"고 설했다.

이어 "업은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六根)이 그 대상인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육경(六境)을 만나 발생한다. 그 업은 의식인 식(識)에 모두 저장된다"면서 "그 순간 식이 업에 오염되어 온갖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중생은 특정한 사물을 볼 때 업이 저장된 식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대웅전의 기둥을 볼 때 '기둥' 그 자체를 보면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생은 '붉다' '길다' '굵다' 등 갖은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은 분별을 불러온다. 분별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동반한다는 것이 진우 스님의 설명이다. 이에 스님은 분별과 다툼을 일으키는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증장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누군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고 치자. 그럼 식에 기분 나쁜 업, 악업이 저장된다. 또 인연이 되면 다시 식에 저장된 업이 다시 발동되어 또 다른 업을 낳게 된다"며 "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일러 우리는 '육도윤회'라고 한다"고 전했다.

"악업을 줄이려면 선업을 키워야 한다. 계를 잘 지키고 바라밀행을 해야 한다. 그럼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이 청정해진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삼업 청정은 자연스럽게 보살행을 하게 된다. 보살행은 선업을 짓는 지름길이다. 선업은 복을 불러오고 욕심을 사라지게 한다. 그럼 또 다시 선업을 짓게 되는 '복의 선순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업장소멸의 비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업을 불러오는 마음의 습관은 '분별'에 있다고 꼬집었다. 분별을 멈추는 방법으로 스님은 '방하착(放下着)' 선명상을 제시했다. 순간순간 일체를 내려놓는 방하착을 실천해, 분별하는 마음 습관을 고쳐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회복하라는 뜻이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스스로의 마음 평안을 위해 꾸준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멈추고 선명상을 하라. 명상이 힘들다면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하라"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 오늘 정초기도를 계기로 마음 습관을 잘 들여 업장이 소멸되어 편안한 한 해 되시길 두 손 모은다"고 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우 스님과 108배…국난 극복 염원

김병주 위원장 등 불자 의원 동참
"화쟁 정신으로 자비로운 세상"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들은 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08배를 하며 국난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신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불자 국회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08배 정진을 함께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화합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들은 2월 4일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이날 정진에는 종교특위 불교위원장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용선 종교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김영배 종교특위 부위원장(정각회 수석부회장), 이수진, 전진숙, 백승아, 민병덕, 김준혁 의원과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 김상기 종교특위 불교수석부위원장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정진 후 기자들을 만난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 부처님 가르침과 가피로 국난을 하루빨리 극복하자는 염원으로 108배 정진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정치 원리가 모두 있다고 본다"면서 "화합 화쟁하며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재편한 종교특위의 활발한 활동으로 전통문화 보존 전승과 불교 중흥에 힘쓰는 한편, 종단과 불교 외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종교 현안을 다루는 전체 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불교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하며 "조계종과 활발히 소통해 불교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를 적극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최고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 서원도 밝혔다. 군대 재직 당시 매일 108배를 했지만 최근에는 자주 하지 못했다는 김 최고의원은 "이번 동참을 계기로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서원도 세웠다"면서 "마음도 수양하고 몸도 닦으며 정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특위 불자 국회의원들은 108배 정진 이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비공개 차담을 갖고 불교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교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임은호 기자

"특별교구장,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해야"

도륜 스님, 종법 완화 개정 제안
"입법자 투입은 신중" 반론 이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해외특별교구장에 중앙종회의원도 겸직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은 삼권분립을 위해 중앙종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군종과 해외특별교구장에 한해 종법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륜 스님은 "해외포교 및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장과 군종특별교구장에 한해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헌 제35조 1항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의 총무부(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 사찰의 주지를 겸할 수 없다.

도륜 스님은 "군종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는 산중총회를 하지 않고 교구장은 투표를 하지 않는 등 특별법에 의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특별교구 활성화를 위해서 종회의원에게도 길을 열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원 스님은 입법기구 주체자가 실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특별교구 입법이 유리한 쪽으로 과해질 수 있는 상황도 피치 못하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진 스님은 "특별교구장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교구장 소임과 차이가 있다"면서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것"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표했다. 혜산 스님도 "해외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유대감이 높고 총무원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중앙 행정 경험이 있는 이가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이 맞서자 위원장 선광 스님은 "종회의원이 겸직함으로써 특별교구가 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또 다른 인재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면서 "군과 해외포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뉴진스님'에 "젊은층 전법" 당부

2월 5일, 신간 낸 윤성호 격려
'이고득락' 적힌 호신부 선물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뉴진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성호 개그맨에게 "힘한 불교로 젊은이들에게 활발한 전법포교"를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윤성호 개그맨의 예방을 받았다. 윤성호 개그맨은 지난해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며 젊은 층 사이에서 '힙한 불교'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슬럼프를 극복해 낸 노하우를 담아낸 책 '얼마나 잘되려고'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진우 스님이 추천사를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성호 개그맨은 진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며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오는 큰 변화를 담았다"면서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이 온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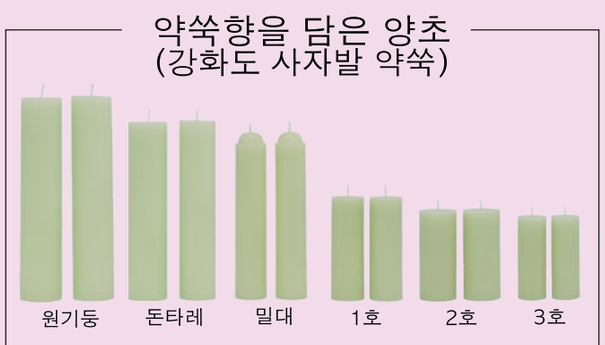
스님은 "이고득락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 앞으로 젊은이들이 출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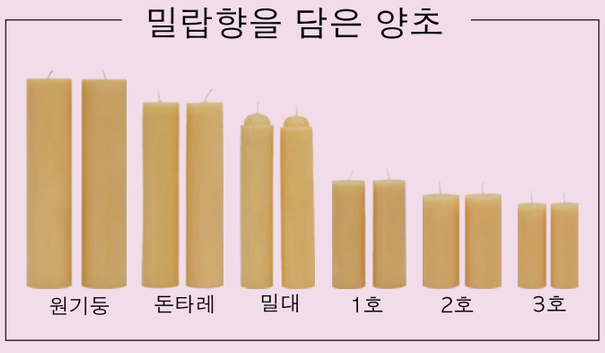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미디어 호감도 상승 긍정적… 불교 문턱 더 낮추자”

미디어 속 불교 열풍, 전문가에게 묻다

인간성 필요 시대, 불교에 주목
박람회 등 체험성 강화도 한몫
미디어 내 불교 오류 적지 않아
모니터, 대응 종단 조직 필요해
니즈 파악해 불교 신행 유도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혜공 스님


법장 스님


김응철 교수


석길암 교수


최원섭 연구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힙한 불교’ 열풍이 이어질 모양새다. 유명 아이돌이 추천한 불서는 서점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곡에 불교적 메시지와 이미지를 차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반야심경〉 독경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간 미디어 속 불교가 고즈넉 산사의 수행처이거나 등장인물들의 장례식 공간으로 주로 활용됐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 미디어 속 불교 이미지의 변화와 대중적 호응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간성 회복이 필요한 시대, 대중들은 불교와 고전에서 그 길을 찾고 있다고 봤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자신, 그리고 마음(정신)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속에 불교적 가르침이 유의미하게 다가서고 있다”면서 “다시 말하면,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불교적 사상, 가르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진단했다.

동국대 책임 교수 법장 스님은 “작금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이 희미해진 시대이여서 인간성 회복에 많은 관심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도서와 고전에서 길을 찾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불교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며 연기적 삶을 추구한다. 과학이 극으로 발전한 시대에 불교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킬 터닝 포인트를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고 봤다.

‘보는’ 불교에서 ‘체험하는’ 불교로 전환된 것도 2030세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하는 요인이 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젊은 세대들은 ‘체험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저 ‘보는’ 종교였던 불교를 템플스테이, 불교박람회 등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 불교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이라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의 템플스테이 체험 영상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작가, 방송 PD, 기획자들이 불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불교가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길암 동국대WISE캠퍼스 교수는 “종교적(불교적)으로 엄격한 의례와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불교·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세대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는 불교를 기성 종교로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의 하나로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호응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세대별 니즈를 파악해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혜공 스님은 “잘파세대들이 갖는 불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교에 대한 호감인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유의미성인지, 아니면 종교적 신앙적 의미로의 접근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불교가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일단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법상에 올라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서 눈을 맞추고 그들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현재의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신심이 없을 수 있지만, 관심을 갖게 해 신앙토록 해야 한다. 관심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문화 지도력이 있는 불자를 육성해서 ‘불교 인플루언서’로 키워야 한다”면서 “불교를 통해 얻은 치유의 경험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나누게 되면 이는 전법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를 보게 된 대중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행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섭 연구원은 미디어 속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가공·확대하는 미디어 대응 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원섭 연구원은 “제니의 ‘ZEN’ 뮤직비디오의 부엉이에서 불교적 메시지를 찾는 해석들이 SNS에 있다.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불교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제니의 ‘ZEN’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이고 이슈도 될 수 있다”면서 “기존 미디어 소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탄신 98주년 다례재

1월 30일 안양본원서 5층 법당서
500여 대중 참석, 대행 선사 기려
혜수스님 “선사 가르침 따라 정진”

한마음선원을 창건하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8주년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월 30일(음력 1월 2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대행 선사 탄신 98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전국 지원장스님과 문도스님, 안산 감로사 주지 길산 스님, 이동복 신도회장·박종수 명예신도회장과 신도회 임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이사장 혜수 스님의 헌향·헌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본원·지원 신도 회장단 등의 헌화, 대행 선사 영상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대행 선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업식을 쌓지 말고 초발심을 내어 부단한 정진을 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대행 선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 때는 자기가 산대로 살게 돼 있다. 독하게 살았으면 독사가 될 것이요, 남의 것을 탐하면서 돼지처럼 살았으면 돼지가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면서도 “마음공부하는 스님들에게는 선업도 놓고 악업도 놓으라고 한다. 악업을 지으면서 선업을 지을 수 있고, 선업을 지으면서 악업을 지을 수 있어서다. 마음공부할 때에는 무릇 양변을 모두 놔야 한다”고 설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대행 선사 영전에 헌다를 하고 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 따라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는 주인공을 믿으라고 늘 말씀하셨다”며 “선사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공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가르침대로 주인공에 맡기고 정진한다면 우리는 대자유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한해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이동복 신도회장은 마음의 편지를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맹구우목(盲龜遇木)의 희유한 인연임을 알고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다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이날 대행 선사 탄신 다례재에 이어 합동천도재와 촛불재를 봉행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수현 스님 원적

1월 25일, 세수 86세 법납 71년



불교 사회복지를 선도하며 한국 비구니 승가를 이끈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안산 수현 명사〈사진〉가 1월 25일 오후 안양 안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1940년 9월 3일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난 수현 스님은 15세 되던 해인 1954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남석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그 해에 대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1966년 동학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그 해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뒤 동국대에 진학해 학문에 전념했고,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조계종 중앙포교사로 위촉된 수현 스님은 사회복지를 통해 부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1981년 조계종단이 운영하는 최초의 유아원인 종로구 낙산어린이집의 원장을 맡게 된 수현 스님은 1986년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며 낙산어린이집을 한국 최고의 모범 유아원으로 만드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수현 스님은 1997년 개관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며 군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책임졌다. 안양시 정화위원을 비롯해 서울 목동청소년회관 사무국장,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 종립학교 관리위원, 비구니 계단 위원을 역임했다.

이처럼 불교사회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큰 족적을 남긴 수현 스님은 2019년 조계종단 비구니스님에 대한 최고 법계인 명사법계를 품수했으며, 통일가사추진위원장 맡아 종단 가사 체계를 정비했다. 2021년 4월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에서 원로의장으로 추대됐다.

수현 스님은 평소 “바라이죄를 범하면 승려로서 목숨을 마친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승려의 본분사를 찾기 더욱 어려우니 세상이 혼란할수록 계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한다”며 지계(持戒) 정신을 강조해왔다. 임은호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지역 디지털 문화 선도로 노인복지 증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신년 간담회
관내 디지털센터 운영 확대 계획
스마트 봉사단 등 디지털 교육↑
죽음준비교육…‘웰다잉 콘텐츠’로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025년 간담회에서는 곽상언 국회의원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진이 함께하는 주민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올해는 관련 시설을 더욱 확충할 방침입니다. 관내 디지털센터 최신 기기 설치, 어르신 가정의 IT 기기 배급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최신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2월 4일 관내 4층 종로마루홀에서 이용자와 지역주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한해 주력 사업을 소개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이날 처음으로 이용자 외 지역주민에게도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복지관 한해 운영에 앞서 이용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복지관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주력 사업 키워드는 ‘디지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 관내에 이용자들의 디지털 문화 공간 ‘종로시니어디지털센터’를 개소했다. 디지털센터는 증강현실 스포츠 기기와 디지털 교육용 키오스크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이용도를 높여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기업과 연계한 스마트 봉사단, 디지털 정규 교육, 최신 디지털 기기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디지털센터 내에 4D 가상현실(VR) 어트랙션, 키오스크, AR 체험, 인공지능 로봇 등을 상시 설치해 이용자들이 언제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07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온 ‘1:1 맞춤형 죽음준비 교육’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웰다잉 교육 디지털 콘텐츠로 변모한다. 지난해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한 총 681명의 어르신의 죽음 불안감 점수가 평균 66.7점에서 56.7점으로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죽음 교육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 혼합 학습)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도 했다. 효과 검증과 발전을 거듭해온 죽음준비 교육은 올해 내로 연구보고서와 ‘3D 미디어아트 체험관’으로 종합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활발히 이어간다. ICT(정보기술에 통신이 더해진 기술, IT+Communication) 기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종로구 거주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IoT’와 소통이 가능한 AI스피커 ‘아리아’를 어르신 가정에 배급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고립으로 인한 위험 상황을 방지한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ESG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도 공유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대표 브랜드 ‘종로&장금이’는 지난해 매출 1억원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복지관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관은 60세 이상 어르신 위주 인재 양성과 디지털 커머스 내실화를 통해 사업을 견고히 할 예정이다. 지난해 3개 지점 총 연매출 3억7500만원을 달성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플러스카페’는 올해 4호점을 이전 운영하며 상권에 맞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장 정관 스님은 “앞으로도 이용자, 지역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보만 스님, “‘마음의 구조’부터 알아야”

2월 1일 서울 법안정사 큰법당서
부부불자회 토요 법회 초청 법문
마음, 기억과 견해로 이뤄져 있어



“우리는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이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한 번 배워봐야겠죠?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되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알 수 있고, 끝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상주 도각사 주지 보만 스님〈사진〉이 2월 1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주지 법수 스님) 4층 큰법당에서 대중들에게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는 법안정사 부부불자회(회장 정현수)의 초청으로 열렸다. 부부불자회는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불교계 명사를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보만 스님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한 불교심리학’을 주제로 법문했다.

이날 법문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절에 남편이 함께 오지 않아 속상하다”는 한 불자의 질문에 스님은 먼저 남편에게 절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한다고 짚었다. 보만 스님은 “우리의 견해는 100%, 전적으로 기억의 지배를 받는다. 나의 기억에 없는 견해는 나올 수 없다”면서 “남편이 법당에 오지 않는 이유는 법당에 와서 좋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절에 와야 한다는 견해가 생기려면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만 스님에 따르면, 찰나찰나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은 모두 ‘기억’이 된다. 이 기억은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견해’를 구성한다. 그렇게 일어난 견해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억, 견해, 행동의 순환을 ‘마음의 구조’라 일컫는다. 마음의 구조를 잘 파악해 올바른 기억을 심어준다면, 이는 바른 견해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이에 스님은 기억을 아름답게 가꿀 것을 주문했다. “우리는 모두 빈 그릇과 마찬가지다. 어떤 기억을 담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아가 존재가 바뀌게 되어있다”고 강조한 보만 스님은 “그렇기에 마음의 구조를 잘 공부해야 한다. 그럼 서로를 존중하는 ‘보살행’도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민추본, 광복 80주년 맞아 한반도 평화 마음 모은다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발표
기원법회 · 임시정부 역사순례 등
광복회 학술원과 학술회의도 예정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념사업들을 펼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사진, 이하 민추본)는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민추본은 올해 80주년을 맞는 남북 모두의 기념일인 8·15광복을 기념하고 남북의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8월 14일 조계사 혹은 봉은사 경내에서 평화기원법회를 열고,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 남북 군사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불교계의 메시지를 전한다.

역사문화순례와 기념 학술대회 등도 예정됐다. 역사문화순례는 올해 4월 초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임시정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국가 자주권을 위해 싸워온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살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8·15광복 80주년 학술대회는 7월 또는 8월 중 광복회 학술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또한 민추본은 평화 담론 확산과 선명상 대중화라는 종단의 기조에 발맞춰 ‘평화명상’을 민추본 대표 브랜드로 일궈나간다. 남북접경지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트레킹 길을 활용한 ‘평화기원 걷기 행사’에 평화를 화두로 한 명상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 9월경에는 청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철원 한탄강 및 소이산 전망대 일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평화통일 의식 확산에 앞장선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민추본은 △평화통일도량 확대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연대사업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본부장 태효 스님은 “급변하는 정세 속 국내외 사정은 어렵지만, 민추본은 계획한 사업들을 중단없이 진행하겠다”며 “종단을 대표한 평화통일 기구로서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 위촉식도 열렸다. 본부장 태효 스님은 이종수 국립순천대 사학과 교수에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들은 연구포럼 활동을 통해 남북불교유산을 활용한 교류협력 콘텐츠를 연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사회부, 불교사회단체 사업 공모

2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종교 · 한반도 평화 등에 지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의 자비실천 사상을 사회 활동으로 구현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진경 스님)가 불교계 대사회 활동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총 3000만원 규모다. 모집 분야는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실천 활동 △종교 갈등 예방 및 종교 평화 활동 △한반도 평화 지원 활동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선 실현 등이다.

공모사업에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2조3항에 의거, 사회공익활동을 위해 조직된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지원 가능하다. 이중 3년 연속 선정단체, 전년도 동일사업, 기 시행 중 사업, 기타 기관·지자체 후원 사업을 진행 중인 단체는 응모가 제한된다.

단체 심사 기준은 기획력(30점), 적합성(20점), 창의력(20점), 기대효과(20점), 연속성(10점) 등이다. 선발된 단체들은 △교육 및 워크숍 △홍보 및 캠페인(온라인 포함) △연구 및 조사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에 임한다. 한 단체 당 1000만원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사업비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로 결과보고서는 11월 14일까지 필수 제출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2월 21일까지 이메일(hana22@buddhism.or.kr)로 신청공문과 신청서 및 단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02-2011-1829

김가령 기자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인도 네팔 성지순례 11일 3월12일 출발~3월 22일 도착(대한항공 탑승)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305만원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20일 도착
중국 3대석굴중에 하나인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도량인 오대산 성지순례입니다.
▶일 정 : 1일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북경-인천(대한항공)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5월16일~5월25일(9박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동참금 : 34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5월17일~24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문의

중앙아시아 4개국 완전일주 13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월03일~6월15일(11박13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의 4개국을 모두 여행하는 일정으로 천산산맥들이 걸쳐있는 실크로드 천산북로 여행입니다. 천산산맥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유서깊은 여정으로 아프카니스탄과 마주한 테르미즈의 불교유적도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정 : 6월07일~6월22일(16일간)
카일라스(수미산)는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성스러운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동참금 : 문의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일승교 얼음물이 더욱 차도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浦團兀坐不成眠(포단올좌불성면)
寂寂孤燈壁裡懸(적적고등벽리현)
時有好風吹戶外(시유호풍취호외)
劫聞松子落庭前(겁문송자락정전)

좌복에 오뚝이 앉아 잠 못 이루고
적적한 방 등불은 벽 위에 걸렸네.
때마침 불어온 창밖의 바람
뜰 앞에 떨어지는 솔방울 소리.

제방 선원의 선객들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도다.

청규를 준수하고 대중이 화합하며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세간의 온갖 시끄러움이 저절로 멀어져 등불은 밝게 빛나고 뜰 앞에 떨어지는 솔방울 소리까지도 들리게 되었도다.

안거 법도가 원만하게 실천된 일은 크게 희유하다 할 수 있으며, 안거를 통해 삼계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안목을 구족하게 된 인연도 참으로 수승한 일이로다. 이러한 인연은 수선대중을 옹호한 후원대중과 사부대중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이니 모두를 찬탄할 만하도다.

포단에 오뚝이 앉아 잠 못 이루고 정진함은 대립과 갈등의 세계가 관용과 화합의 세계로 변하는 묘리를 찾기 위함이요, 흔들리지 않는 불빛으로 세상을 비춤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로다.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세간의 여러 인연들이 영축산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일승교 얼음물은 오늘도 차고

보경호에 드리운 영축산은 더욱 빼어나다 하리라!

見色聞聲是本心(견색문성시본심)
將金何必更求金(장금하필갱구금)
波無異水君知否(파무이수군지부)
身是全心莫外尋(신시전심막외심)

모양 보고 소리 들음 바로 본마음
황금 갖고 왜 또 금을 구하나?
물결 밖에 딴 물 없음 그대 모르는가
몸이 곧 마음이니 밖에서 찾지 마오.

결제와 해제의 구분은 없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



溪聲便是廣長舌(계성편시광장설)
山色豈非淸淨身(산색기비청정신)
夜來八萬四千偈(야래팔만사천게)
他日如何擧似人(타일여하거사인)
"시냇물 소리가 곧 오묘한 법문이니, 산속 풍광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밤새 설한 이 팔만사천 게송들, 다른 이에게 나중에 어찌 들려줄 수 있으리."

오늘 삼동결제 해제일을 맞아 전국 선원과 강원, 염불원 등에서 삼동결제를 통해 용맹정진을 보여준 종도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상찬을 드립니다.

위에 들려드린 게송은 임제종 황룡파 동림상총 선사로부터 무정설법(無情說法)의 화두를 받고 참구하다 깨친 동파 거사의 게송입니다. 동파 거사의 본명은 소식(蘇軾, 1036~1101)으로 대문장가였으며 유불에 정통한 대학자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황주성 밖의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지은 '적벽부'(赤壁賦)이니 스승으로부터 받은 불교의 깨달음이 글로 흘러 넘쳐 나온 것입니다. 변화와 불변의 경계조차 자유로이 가로지르며 초월적 경지조차 초월한 그에게 세간과 출세간의 분별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비록 삼동결제 해제일이나 본래 수행에 결제와 해제의 구분이 본래 없고,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으며, 유정과 무정법문이 따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 이전의 한 소식은 천성(千聖)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망상을 초월하고 사견에서 벗어나야 최상승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취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얻지 못하는 도리를 알아 진실로 얻지 못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若人欲識西來意(약인욕식서래의)
颯颯松風長擧示(삽삽송풍장거시)
만약 사람들이 서쪽에서 온 뜻을 알고 싶다면
솔솔 부는 솔바람이 바로 그것인 줄 알라.

무정설법의 경지를 일러주는 게송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을 염호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타파할 때 절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견해가 생기고, 통찰의 경계로서 심지법(心地法)을 보는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심지가 활짝 열릴 때 유정과 무정이 하나 되고 따로이 세간과 출세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해제의 도리를 아는 자가 오늘 산문 밖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일러주는 무정설법을 그대들에게 전하니 그대들은 천성이 전하지 못한 도리를 깨달아 큰 소리로 세상에 일러 보시기 바랍니다. 亨!

"버드나무꽃 따고 버드나무꽃 땀이여"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陞座拄杖三下云 會麽?
卽下契合得頓悟 疑團消却出三界
身放毫光照天地 孤雲野鶴阿呵呵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고 이르대,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계합하여 몰록 깨달아 얻는다면
의심 뭉치가 녹아 없어져서 삼계를 뛰어나리라
몸에서 백호광을 놓아 천지를 비추니
외로운 구름과 들에 학이 껄껄 웃음이로다

喝하시고

금일 解制 大衆은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다 할진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四面이 문이 없고 시방이 막힌 벽이 없음이라.

더벅머리에 초생달 같은 귀라. 누구나 다 남아대장부인데 어찌하여 노끈이 없는데 스스로 자신을 얽어 잡아매는가? 그렇다면 벗어나는 一句는 어떠한가?

良久 云

蹈破草鞋赤脚走로다

짚신을 밟아 부수고 맨발로 달아남이로다.

금일 해제를 맞이한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趙州스님 회상에서 있었던 일화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스님 회상에서 해제날 공부납자가 조주스님께 인사말씀을 드리자

조주스님께서 "어디로 가는고?"하고 물으시니

공부납자 스님이 대답하기를 "제방에 불법을 배우려고 나가볼까 합니다."

조주스님께서 불자를 세워 보이고 말씀하시대, "부처가 있는 곳을 가거든 머무르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을 가거든 급히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 이르러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되이 드러내지 말게."

그러자 납자가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조주스님께서 "적양화 적양화(摘楊花 摘楊花), 버드나무꽃을 따고 버드나무꽃을 땄다"라고 하셨다.

訥堂思 頌曰
摘楊花摘楊花 打鼓弄琵琶
昨日栽茄子 今日種冬瓜로다

눌당사스님이 게송을 붙이셨다.
버드나무꽃을 따고 버드나무꽃을 땀이여
북을 치고 비파를 탐이라
어제는 가지를 심고 오늘은 단참외를 심음이라

금일 대중께서 적양화 의지를 한번 일러 보십시오.

금일 산승에게 적양화 의지를 묻는다면 "금강은 섬돌 아래에 걸터앉아 있는데,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불 속을 달립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안은 아주 고준한 공안이라 지난날 큰스님들이 거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해제를 하고 대각사에 고암큰스님을 뵙고 이 공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적양화 의지를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했더니 고암 큰스님께서 답하시길 "眼中瞳人著繡靴(눈가운데 동자사람이 수놓은 신을 신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느 큰스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일구였습니다.

동안거 동안 정진 대중께서 본참공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해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용맹정진하셔서 각자 참구하는 화두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然雖如是나 본참공안에서 확철대오만을 인정하지 餘他는 半箇도 不許用이라. 何故냐?

富嫌千口少 貧恨一身多로다

부자는 천 사람의 입도 적다고 원망하고

가난한 사람은 한 몸도 많다고 한탄함이로다

喝하시고

拄杖三下 下座하시다.

진여 자성은 허공과 같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오늘은 을사년 동안거 해제 날입니다.

동안거 3개월 동안 참다운 진여 자성을 확철하게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좌복위에서 뼈를 깎는 정진을 해서 모두가 해탈해서 자유인이 되는 날입니다. .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야 선원 포단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아무도

나 자신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신 대사가 승찬 대사를 찾아간 것은 13세의 사미 시절이었다.

큰 스님 자비를 베풀어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소서,

인생살이가 힘이 듭니다. 제 앞길을 막힘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 주소서,

누가 너를 속박하였기에 해탈하고자 하는가!

누가 나를 묶어 놓았는가!

열심히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묶어 놓았나를 찾아보아도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은 없구나.

나를 묶어놓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큰스님! 나를 묶어놓은 것은 저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사미는 이제까지 가졌던 온갖 의심을 타파하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동안거 석 달 동안 화두 일여 속에서 확철하게 깨달아서

의심 덩어리가 풀리게 되면 머물고 행하는 곳 그대로 무심이 됩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의심 덩어리를 해결한 눈 밝은 납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각을 하는 해제 동안에도 자신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거가 끝난 대중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대중을 제도하기 위하여 둘이 같이 다니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진리를 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도록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虛空無內外 허공무내외
心法亦如此 심법역여차
若了虛空故 약요허공고
是達眞如理 시달진여리
허공이 안과 밖이 없듯이
심법 또한 이와 같도다.
만약 허공을 요달하고자 하면
이것이 곧 진여의 이치를 요달함이라.

마음을 허공과 비교해 보라,

허공은 텅 비어서 우주에 충만한 것이다. 형체가 없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허공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허공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다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허공을 제대로 답한 것은 아니다. 허공을 아는 사람은 눈을 껌벅이고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허공이 형체가 없는 것처럼 마음도 또한 형체가 없는 것이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 아는 것이다.

텅 빈 허공의 이치는 곧 마음과 같아서 허공의 이치를 통달해 알면 마음의 이치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 마음은 맑고 여여하다. 일용생활이 가식도 꾸밈도 없이 여여하다면 따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안개가 자욱하면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나면 푸른 청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무명의 업장이 사라지면 그대로 파란 하늘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眞理本無名 진리본무명
因名顯眞理 인명현진리
受得眞實法 수득진실법
非眞亦非僞 비진역비위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다.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드러내니
진실한 법을 깨닫고 나면
참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

진여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어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아무개 하는 이름도 갖다가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름뿐이지 그렇다고 그 이름이 깨달음에 본 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여 자성은 허공과 같고
진여 자성은 맑고 청정해서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구나!

2월 12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종단 종정예하를 비롯한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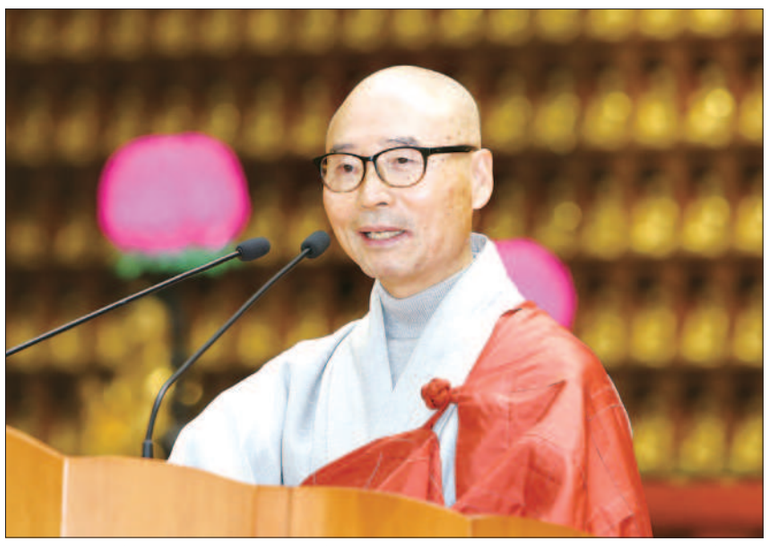
〈편집자 주〉

“상월원각대조사 수행종풍 꽃 피우겠다”

부산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 취임
2월 1일, 지관전서 진산법회 봉행

정진과 기도의 수행 공동체 근본
신앙 공간과 부처님 가르침 공유
정서적 안정 주는 도량으로 성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부산 삼광사 제13대 주지에 용암 스님이 취임했다. 진산법회에서 신임 주지 용암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수행 종풍을 꽃 피우는데 노력 할 것”이라 포부를 전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제13대 주지에 용암 스님이 취임했다.

2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열린 진산법회에서 신임 주지 용암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의 수행 종풍을 꽃 피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포부를 전했다.

용암 스님은 취임사에서 “편의와 이기심 그리고 욕망에 길들어져 있는 중생의 마음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수용과 멈춤, 비움을 강조하셨다. 욕망을 멈추고 바른 법을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수행하고 기도하는 수행공동체를 바르게 이룰 것”이라며 “임기 4년 동안 상월원각대조사의 수행종풍을 꽃피우는데 노력하고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용암 스님은 “지극한 마음과 열정으로 삼광사와 불자들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주신 영제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를 전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공이듯, 삼광사 주인은 이곳에서 부처님을 닮고자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이다. 삼광사와 인연 맺은 모든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심으로 소통하여 환희심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산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봉독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개회사 △이임사 △취임사 △축사 △음성공양 △관음정진 및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광명사 주지), 삼광사 부주지 성해 스님, 덕중 스님, 이헌승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전 주지 영제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삼광사에서 여러 인연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해 행복했다”며 “삼광사는 천태종 최고 사찰이다. 이곳에서 모든 불자들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며 앞으로도 최고의 신도가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종의회부의장 경천 스님, 이헌승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경천 스님은 “전 주지스님의 역할과 활동에 감사드리며 보내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렇게 맞이하는 기쁨도 있다”며 “삼광사 불자들은 전 주지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하고 신임 주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 삼광사를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도량으로 만들고 화합의 모범 불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신임 주지 용암 스님은 천태종 2대 종정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전국 주요 말사 주지 소임을 맡아 포교를 펼쳐왔다. 천태종 교무부장, 재무부장,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황령산 유원지 난개발 우려 ‘백지화’ 촉구

운동본부 2월 4일 기자회견
“황령산, 부산 허파…지켜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정산 스님)는 2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은 2021년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18m 높이의 봉수전망대와 관광테마형 푸드코트, 박물관 등 복합 관광 시설 및 케이블카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2조2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민자사업이다.

정산 스님은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자연 문화 유산인 황령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런 난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오직 일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다. 황령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문화유산이다. 부산시민을 위한다면 난개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산시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지만 함흥차사가 되었고 ‘조건부 승인’을 도출하며 일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형식적인 여론 수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시민 기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령산 정상부에 난립하게 될 구조물이 황령산 고유 경관에 교란과 뒤틀림을 발생시킬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봉수전망탑이 랜드마크로 기능하기 위해 과도한 조명이 발광될 때 주변 동식물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이들을 쫓아내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해 운동본부는 “부산시는 개발업자의 이익에 앞서 시민의 녹색복지와 기후 위기에 반하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며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통한지, 부처님을 담아내다

현정오 스님 초대전…3월 22일까지

갤러리코스모스(관장 김윤희)가 현정오 스님의 초대전을 오픈했다. ‘여래 웃다’ ‘여래 미소짓다’ ‘여래 다시 오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전통 한지만을 이용해 부처님을 그리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현정오 스님은 20년 전, 우리의 전통 한지를 만드는 영담 스님(섶마 닥종이 문화원, 구 영담한지 미술관)과 만나 한지에 부처님을 그리는 작업을 전개했다.

현정오 스님은 약사여래불, 열반, 반가사유상 등 특별함이 넘치는 터치로 탁월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작품을 끊임없이 창작했다. 현정오 스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다. 그림을 통해 모든 이들이 위로 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현정오 스님의 작품 ‘사유1’.

이번 ‘여래 웃다’ ‘여래 미소짓다’ ‘여래 다시 오다’는 1월 27일 오픈, 3월 22일까지 이어진다. 051-711-718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미단학림원, 자타카 대회 시상식

2월 2일 청량사 법당서

사단법인 청미단생활문화학림원(이사장 운암 스님)이 2월 2일 부산 명지 청량사 법당에서 제16회 부처님 전생담(자타카)영어 말하기 대회 상장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상장 전달식은 지난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제16회 부처님 전생담(자타카)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추우주, 하지현, 김시경 어린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사)청미단생활문화학림원은 상장과 함께 격려금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수상자의 해외 연수를 위한 후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사장 운암 스님은 “어린이 불자의 열정과 노력이 포교 인연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드린다”며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 어린이의 노력을 격려하고 향후 어린이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한나래문화재단 ‘몽골영화제’ 개막

2월 5일~7일 영화의전당서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이 2월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2회 몽골영화제’를 개막했다.〈사진〉

올해로 한국-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몽골에서 제작한 최신작 4편을 무료로 선보였다. 이번 영화제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몽골과 한나래문화재단 간 우정의 결실로 마련됐다. 한나래문화재단은 영화제를 통해 몽골의 문화와 삶을 조명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한국과 몽골의 가교역할을 할 이번 영화제를 통해 몽골의 다방면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신뇨엔 정초 한수행 호마의식 성료

신뇨엔 성지 오야소노와 세계정사 온라인 연결
개조 '자비실천행' 가르침 이어 새해 활동 다짐


종교법인 신뇨엔(진여원眞如苑, 원주 이토신소)은 1월 28일 총본부 성지 오야소노를 비롯해 전 세계 신뇨엔 의처에서 많은 신도가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정초 한수행 호마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서울정사에서 교도들이 온라인으로 일본 현지 의식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법인 신뇨엔(진여원眞如苑, 원주 이토신소)은 1월 28일 총본부 성지 오야소노를 비롯해 전 세계 신뇨엔 의처에서 많은 신도가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정초 한수행 호마의식을 봉행했다. 이번 의식은 신뇨 게이슈사마(원주)의 집전 아래 토리카에 후계자를 비롯 직중 등이 함께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신뇨엔 교도들은 일본 현지 뿐만 아니라 한국 서울정사, 부산정사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동참했다.

신뇨엔은 '신뇨 자구의 이타행(정진)을 세계 미래로'를 주제로 '한수행' 집중수행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호마의식에서는 신뇨엔 개조 이토신죠 교슈사마의 자비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됐다.

탐진치 여의는 수행과 실천행 강조

이토신죠 교슈사마는 생전 영상법문에서 "한수행은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한수행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1년간의 정진 방향을 정하여 탐진치를 정화함과 동시에 이렇게 얻은 결실을 타인에게 전하는 지혜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오늘 호마를 올렸으니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음을 다짐하고 한수행을 이어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식 후, 이토신소 신뇨엔 원주는 인사말에서 "신뇨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화합하고 결집하여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신뇨 교도의 길"이라며 "선배들이 구축한 신뇨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모든 교도들이 함께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뇨 영원의 등불과 정진의 맹세

이번 호마의식에서 수법된 호마 성화는 신뇨엔 이토신죠 교슈사마가 채화해 이어온 '신뇨 영원의 등불'로 이 등불에는 중생 구제의 의지와 염원이 담겨 있다. 이번 호마의식은 1989년 1월 28일 이토신죠 신뇨 교슈사마가 생전 마지막으로 호마를 수법한 날과 맞물려 더욱 뜻깊었다. 의식 후 서울정사에 모인 신도들은 "호마의 성화가 지혜의 빛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밝히고, 그 빛이 전 세계에 닿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와 다짐을 표했다.

의식에서는 〈대반열반경〉 독송이 이뤄졌으며, 신뇨엔 전통적인 법의 착용 및 석장 흔들기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신뇨엔 교도들은 요령소리에 맞춰 독경하는 기도를 진행했다.

한편, 신뇨엔은 한국말로 진여원으로 불리며, 일본 진언종계 재가불교 교단이다. 1936년 창립해 도쿄에 총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승이타행 실천과 내면의 불성을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서울정사와 부산정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11월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시 총본산 중창불사를 성료할 예정이다.

"복 짓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월정사 신년하례 법회 봉행
2월 2일 경내 법륜전서 열려
심재국 평창군수 등 참석해

명상치유 문화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 스님)는 2월 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불기2569년 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비롯해 심재국 평창군수와 군 관계자, 월정사 사부대중 300명이 참석했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연기된 관계임을 인식하며 마음을 모은다면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다. '푸른 뱀의 해'에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여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만, 복은 그냥 받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 짓는 일(作福)을 저금하듯이 해야 복을 받는다. 우리사회의 전환기에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지혜롭게 깨어서' 우리의 일상과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축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 경제는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는 부처님전 삼배, 승가전 삼배, 봉행사, 축사, 주지스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중무일물(心中無一物, 본래 마음에는 어떠한 번뇌도 없다)' 한암 스님 휘호가 담긴 복주머니를 참가자 전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오대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전 국민의 휴식처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주지 퇴우 정념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월정사는 같은 날 경내 대법륜전에서 제68회 불가학교 졸업식을 개최하고 2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신중일 기자



월정사 신년하례법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이 동참했다.

5천여 베트남인, 원오사서 설맞이 법회

1월 29~30일, 경내 일원서
전통음식 나눠 먹고 놀이 즐겨



천안 베트남 원오사가 국내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법회를 봉행하고 고향의 향수를 달랬다.

천안 베트남 원오사(주지 뜨엉탄 스님)는 1월 29~30일 양일간 경내 일원에서 설 명절 법회를 진행했다.〈사진〉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음력설을 새해로 지내는 풍습을 지니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 근원각지에서 베트남인 5000여 명이 모였다. 원오사에 모인 이들은 동향 사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눴다. 이후, 베트남 설날 전통음식인 '반쯩(Bánh chưng)'과 쌀국수를 나눠 먹고 대나무 춤, 사자춤 등 베트남 전통놀이·공연을 즐겼다. 명절 마지막 행사는 복권 추첨으로 최고급 휴대폰, 전기 자전거, 전기밥솥 등 다양한 경품을 동참 대중에 선물했다.

뜨엉탄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 불자들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나눔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2025년 새해에는 사찰주변에 구입한 부지에 불교 수행공간,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시설, 양로원 불사로 사격을 진일보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총무국장 법연 스님(태학사 주지)은 "원오사가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북 불교계 복지관, 설 맞이 떡국 나눔

1월 24일,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역기관 협력 · 후원 통해 진행



민족 명절 설을 맞아 전북 불교계 복지관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금산사복지원(대표 화평 스님) 산하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초 스님)은 1월 24일 관내에서 복지관 회원 및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사진〉

서원노인복지관장 석초 스님은 "설날은 가족을 비롯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명절로 이번 떡국나눔에서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꼈길 바란다"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에도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순자(79) 어르신은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하고 기쁘다"면서 "복지관과 후원해준 분들 덕분에 이번 설이 따듯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 스님)이 운영하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고창농협과 고창농가주부모임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행사에서 복지관은 어르신들에 떡국과 음료, 과일 등을 대접했다.

관장 해봉 스님은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성 법계사 화재…대웅전 전소

2월 3일, 인명 피해 없어



2월 3일 경기 안성 법계사(주지 도윤 스님)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대웅전 1개동이 전소됐다.〈사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한 경기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불화 2점은 다른 건물에 보관돼 있어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법계사는 지난해 4월 만공스님의 유품을 포함해 총 9점의 불교유물을 덕숭총림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관장 주경 스님)에 기증한 바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日 불교계 미투…日 불교, 왜 침묵하나

2024년 비구니스님 폭로 무시
日 불교계 세습적 구조가 원인
종단 간 경쟁, 불교계 논의 불가
"불교계 하나의 목소리 필요해"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엔랴쿠지. 사진출처=변호사 JP뉴스

지난해에는 일본 불교계 내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천태종 비구니스님인 에이쵸 스님이 약 14년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왔음을 폭로해 전 일본 사회가 분노했다. 이에 일본 불교계는 1년이 넘도록 침묵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일본 법조계 매체 '변호사 JP 뉴스'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을 분석했다.

변호사 JP 뉴스 측은 일본 불교계가 에이쵸 스님의 폭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이유가 일본 불교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에이쵸 스님이 속한 일본 천태종 내부 관계자는 "에이쵸 스님의 폭로 직후 종단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계를 넘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징계 조치 등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만약 주목을 받지 못 했다면 스님의 폭로는 그대로 지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천태종 관계자는 "일본 불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습을 통해 스님이 되는데, 종헌종법에 따라 멸빈된 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계로부터 추방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습될 경우, 부모가 은사가 되며 같은 종단 혹은 같은 지역 사찰이라면 스님 간 친척인 경우가 많다"면서 "한 스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은사인 부모와 가족, 친척이 있는 타 사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짚었다.

더불어 변호사 JP 뉴스 측은 일본불교가 가진 '종파불교'의 영향으로 일본 불교계 문제가 가시화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타 종단과 경쟁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일본 불교계는 타 종단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정토진종 혼간지파의 한 비구스님은 "전체 불교계는 한 종단의 문제를 언급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다"면서 "자신의 종단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타 종단의 어떤 일도 사소하게 생각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전했다.

변호사 JP 뉴스는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일본 불교계 스스로의 자정과 쇄신을 요구했다. 매체는 "일본 불교계가 가진 폐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일반 대중사회와는 동떨어진 가치관과 행동 방향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불교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폭로를 '특정 종단의 일'이 아닌 '불교계 전체의 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런 문제는 모든 종단이 공통으로 해결할 과제이기에 불교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럼 빌리지 화재…틱낫한 스님 요사채 소실

세 승원 中 자운당 대부분 소실
요사채 복원 위한 가금 모연 시작


화재가 발생한 당시의 자운당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베트남 출신 불교지도자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에 세운 수행센터 플럼 빌리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국제 불교 뉴스 온라인 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1월 28일 보도를 통해 1월 23일 발생한 플럼 빌리지 화재 소식을 전했다.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인근의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는 틱낫한 스님이 세운 승가 공동체로 1982년 작은 농장에서 시작됐다. 틱낫한 스님이 세운 여러 수행센터 가운데 가장 크고 최초라는 의미가 있어 총본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전체 부지 안에 법운사(法雲寺), 감로사(甘露寺), 자엄사(慈嚴寺) 세 승원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플럼 빌리지와 틱낫한 재단에서 2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화재는 이른 아침 감로사 구역에서 발생해 자운당 건물을 덮쳤다. 스님들의 요사채인 자운당에는 당시 9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렀는데 한 스님이 먼저 일어나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와 구급대, 경찰 등은 3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압했다. 자운당은 대부분 소실됐으며 정면과 북쪽, 남쪽 외관의 일부만 남았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으로, 예비조사에 따르면 건물 벽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밝혀졌다.

플럼 빌리지는 성명에서 "스님들이 틱낫한 스님의 유묵과 유품, 도서들을 최대한 구출했으나 이외 물건과 건물들은 대부분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비구니스님 한 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치료를 받아 곧 회복했다"며 "감로사 대중스님들은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준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틱낫한 스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자운당 건물을 재건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현재 플럼 빌리지의 여러 계획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됐다"면서 자운당 건물과 틱낫한 스님의 요사채 재건을 위한 전 세계 불교 커뮤니티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자운당 건물이 플럼 빌리지 최초의 건물이며 틱낫한 스님이 베트남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요사채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플럼 빌리지는 참여불교의 중요한 중심지로 전 세계 수행자를 끌어들인 역사적 장소"라며 "자운당 소실은 물리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영적 손실을 보여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통역가와 함께하는 웹 세미나

2월 16일, 툽텐 진파 무료 강의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 주최로


툽텐 진파.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테르가(Tergar) 명상 커뮤니티가 달라이 라마 통역가이자 티베트 불교학자인 툽텐 진파(Thupten Jinpa)를 초청해 무료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의 2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건강하지 못한 패턴에서 벗아나기'를 주제로 아비달마(Abhidharma) 경전을 통찰하는 데 집중한다.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는 "툽텐 진파와 함께 아비달마의 실용적 지혜를 전파할 것"이라며 "불교 심리학의 핵심 원리를 배워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 패턴에서 벗어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2월 16일 자정(한국시간)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생중계된다. 툽텐 진파와 대화 후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져 참가자들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는 티베트 불교 전통 중 하나인 카르마 카규(Karma Kagyu)와 욘게이 민규르 린포체(Yongey Mingyur Rinpoche) 닝마(Nyingma) 명상 스승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고대의 명상법을 현대인에게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현대인들이 명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툽텐 진파는 전직 승려로 인도 남부의 티베트 불교 사찰 내의 '간덴 수도 대학(Ganden Monastic University)'에서 학위를 받았다. 영국 켐브리지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5년부터 달라이 라마 영어 통역가로 활동하며 〈A Fearless Heart: How the Courage to be Compassionate Can Transform Our Lives〉 등 티베트 경전 번역본을 냈다. 현재 맥길대 종교학부 겸임교수이자 티베트 고전 연구소 창립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불교 AI챗봇 '붓다봇' 부탄에 수출

경전 번역본 기반 인공지능
부탄스님들 시범 이용 예정


부탄 사찰과 스님들의 모습.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일본에서 제작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붓다봇(Buddhabot)'이 부탄에 진출한다. '더 재팬 타임즈'는 2월 4일 일본 인공지능 불교 챗봇의 해외 수출 소식을 전했다.

'붓다봇'을 개발한 교토대 개발진은 앞선 2021년 팔리어 경전 중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경전 모음집으로 평가받는 '숫타니파타(Sutta Nipata)'의 일본어 번역본 기반의 '붓다봇'을 최초 개발했다. 이후 타 경전도 데이터화를 거쳐 붓다봇에 탑재했다.

개발팀은 2023년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해 붓다봇을 리모델링하고 경전에 해석과 설명을 추가한 '붓다봇 플러스'를 개발했다. 이후 부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붓다봇 플러스의 영어 버전이 완성됐다.

이들은 부탄스님 100~200명을 대상으로 붓다봇 시범 운영을 한 뒤 기능을 개선하고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붓다봇은 이르면 2027년 3월까지 부탄의 모든 스님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부탄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적은 젊은 세대와 영어가 이해 가능한 연령층에게도 붓다봇의 배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세이지 쿠마가이 교토대 미래인간사회연구소 교수는 "붓다봇은 사찰 감소 문제를 마주할 일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서산 부석사 관음상, '100일간' 환지본처

1월 24일 이운 · 고불식 봉행
647년 만에 제자리로 이운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서
서산 부석사로 여법히 봉안
부처님오신날까지 일반공개

김민재 기자, 유재상 충청지사장

"강제로 우리 곁을 떠났던 관세음보살님이 647년 만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647년 만에 돌아오신 보살님을 100일 동안 부석사에 모시고자 합니다. 100일 봉안을 마중물로 삼아 영원히 서산 부석사에 나투시도록 온 힘을 담아 노력하겠나이다." (부석사 발원문 中)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는 1월 24일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고불식을 봉행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간 부석사 설법전에서 친견할 수 있다. 친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다.

이날 부석사 설법전에서 열린 고불식에는 수덕사 송원 설정 대종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서산연합회장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정경 스님, 태안사 주지 흥법 스님,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대마도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 등 스님들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이상근 서산 부석사불상 봉안위 위원장, 김용주 부석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이상근 위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고려 부석사에 봉안됐지만 1378년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1526년, 왜구 종관은 대마도에 관음사를 창건하고 해당 불상을 주존불로 봉안했다. 이후 1951년, 관음사 주지 안도료순에 의해 복장물이 발견되어 해당 불상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산 부석사는 1월 24일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 ·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647년 만에 서산 부석사로 환지본처한 고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사실을 파악한 부석사가 지속적인 환수 활동을 펼치던 와중,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불상이 밀반입됐다.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대마도 관음사 점유시효를 인정해 소유권이 일본 대마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계종은 대마도 관음사와 한국정부에 환수 전 부석사에서 100일 친견법회 봉행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면서 이날 친견법회가 마련됐다.

이어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귀환을 삼보전에 고하는 고불문 낭독이 진행됐다. 원우 스님은 고불문에서 "고려 서주 부석사에 모셨던 금동관세음보살상은 거친 모습으로 서산 부석사에 돌아오셨다.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우리 곁을 떠나겠지만 100일 동안 우리 곁에 있을 예정이다"며 "모든 것은 원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의미가 있다. 오늘 고불식을 인연으로 100일 봉안 후 일본으로 돌아간다. 부석사 사부대중은 금동관세음보살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매진할 것"을 발원했다.

설정 대종사는 고불식 법문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서원했다. 대종사는 "애국인들이 1905년 〈황성신문〉에서 말했듯이 '시일야방성대곡'이다. 소리 내 울고 싶은 시간이다. 600여 년 전 간절한 마음으로 모셨던 관세음보살님이 일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다"며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어 기뻐서 눈물이 나고, 다시 가야한다니 슬퍼서 눈물이 또 난다"고 설했다.

"법이라는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고 하지만, 법은 양심 밑에 있는 것이 법이다. 또 양심 위에 있는 것은 신앙이다. 법원의 결정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조한 대종사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 32가지로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운식이 설행됐다. 이운식은 △삼귀의·반야심경 △기념사 △경과보고 △인사말 △답사 △치사 △축사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원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1330년 32인의 발원과 시주로 관세음보살이 모셔졌다. 바닷가의 재난과 역경을 보살님의 자비로 극복하려는 고려인의 혼이 담겨 있는 불상"이라며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대마도 관음사의 양해로 100일간이라도 친견법회를 하게 됐다. 이번을 계기로 한일간 불교계의 협력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님 미소와 연꽃이 만나면…

범어사 성보博 김종호 개인전
2월 8일~16일…60여 점 전시



김종호 작가의 '부처님 미소와 연꽃의 만남 I '.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2월 8일부터 16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김종호 작가의 제5회 개인전 '부처님 미소와 연꽃의 만남: 사계(四季)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선보이는 첫 초대전으로, 김종호 작가가 38년간의 긴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예술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김종호 작가는 종립 해동중 교장으로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헌신하며 38년간 교육의 길을 걸어왔다. 300여 회 이상의 단체전시와 4회의 개인전을 통해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오랜 예술적 탐구의 결실로, 불교의 자비 정신과 연꽃을 상징적인 요소로 삼아 자연의 사계절을 그린 6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김종호 작가가 그동안 야외에서 진행한 사생 활동과 구상 회화의 진지한 탐구가 돋보인다. 연꽃과 부처님의 미소를 통해 그가 지닌 불교적 사유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자연의 생명력과 빛을 중심으로 한 그의 작품들은 시적인 상상력과 사실적 화풍이 결합하여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작가는 교직 생활 중 학생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만의 색을 찾아 그림을 그려왔다. 이번 전시는 그가 추구하는 색의 의미와 빛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중요한 이정표로, 그만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김종호 작가의 전시를 축하하며, 이번 전시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부산미술협회 최장락 이사장은 "김종호 작가가 전하는 자연의 정취와 불교 사상을 담은 작품들이 부산 문화예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종호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고자 하며, 예술을 통해 자연과 인간, 불교적 사유를 연결시키고, 관객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사계절을 담은 자연의 변화를 그린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여정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주목!'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진흥사업

묘공학술상 · 학술장학생 공모
학술상 대상에 1000만원 상금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모집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을사년에도 이어진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제8회 묘공학술상 및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묘공학술상 공모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와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는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면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선발 공모'도 이뤄진다. 응모자격은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이다. 선발인원은 0명이며 스님은 별도전형으로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묘공학술상과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접수는 대행선연구원 이메일(myogong@daehaeng.org)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행선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마음연구〉 원고를 모집한다. 발간시기는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로 투고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선학 및 불교학 관련 주제이며, 연중 접수 받는다.

논문 투고 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다.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후 투고하면 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선양하는 학술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학 연구자들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정각사학술원, 불교학연구자 지원 공모

2월 20일까지 서류접수
박사 및 박사과정 대상

군포 정각사 산하 정각사학술원(원장 정엄 스님)이 불교학연구자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모사업은 오는 2월 20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 및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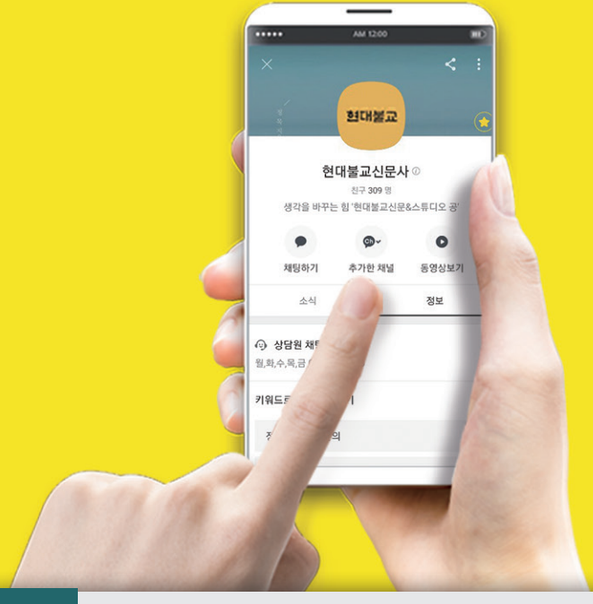
지원금액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연 1800만원(월 150만원)이며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기간연장 여부는 정각사학술원의 별도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학부·석사·박사 과정 졸업증명서 및 박사과정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박사학위증 사본, 연구계획서, 경력 및 연구실적 목록, 불교 신행 계획서 등 구비해 해당 서류를 PDF로 만들어 이메일(so000113@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2월 27일 오후 1시 정각사 경내 학술원 상담실에서 2차 면접을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5~2/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붓다의 향훈을 따라서: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	대연스님 지음	해조음	6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개정2판)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불교입문(조계종 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대원불교학술총서25) 유가행파 수행론의 근거와 목표	안성두	운주사
3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8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경(SUTTA)	이중표 편역	불광출판사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 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대행 선사 '뜻으로 푼 금강경' 영어로 읽는다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
한마음국제문화원 편찬
한마음출판사 펴냄
2만5000원



한마음국제문화원 韓英대조본
10년여 번역불사 통해 발간
영어권 불자에 전법 가능해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 스님은 만법이 둘이 아닌 한마음 이치와 도리를 확실히 체득(증득)하신 분으로 금강경의 교의를 스님만이 구사하시는 어문으로 호방하면서도 자유롭게 풀어내셨던 실천적 수행자였습니다. 대행 스님이 남긴 〈뜻으로 푼 금강경〉의 영역은 전 세계에 많은 내면의 심적 내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량한 감로수 같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17년 〈뜻으로 푼 금강경〉의 독경을 녹음했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최근 방영된 TV다큐멘터리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사진)는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경전을 뜻으로 풀어 전했다. 대행 선사가 전했던 한글 뜻풀이 금강경이 국내 최초로 영어로 번역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한마음국제문화원(팀장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영역한 책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한마음출판사)이 한영(韓英)대조본으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선사의 원적 후 10년 동안 번역 불사를 진행해 왔으며, 대행 선사 탄신 98주년에 맞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글로벌 시대에 한마음국제문화원의 번역 불사는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와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즉시 구매가 가능하다.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독송돼온 경전으로, 반야의 지혜와 대자유인의 깨달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이기도 하다. 이번 영역본은 대행 선사가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993년에 마무리한 〈뜻으로 푼 금강경〉 자필 한글원문을 근간으로 했다.

대행 선사는 '불교의 세계화'에 대해 이 같이 설한 바 있다.

"해외에도 정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이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인 제자 청고 스님은 "큰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영어권 불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스님이 생전에 활발하게 펼치신 해외 포교의 길을 계승하고, 한국 불자들에게도 큰스님이 간명한 한글로 뜻풀이한 〈금강경〉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고 한영대조본 기획의 배경을 밝혔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간이 가능했던 것은 큰스님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강경이 알려주는 궁극의 도리인 한마음의 진리를 몸소 깨닫는다면 대자유인이 되어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출간의 의의를 밝혔다.

대행 선사는 일찍이 불교경전의 한글화 작업의 시급성을 인식했다. 1970년대부터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뜻으로 풀어 내놓음으로써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섰다. 일상적인 언어로 뜻 풀이된 경전들은 불자들이 독송과 동시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행 선사는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 최초로 예불시간에 한문 독경 대신 한글 독경을 도입한 선구자이다. 선사의 뜻에 따라 한마음선원에서는 1988년부터 예불 시간에 한글 뜻풀이 경전을 독송하기 시작하며 한글 독경 보급을 이끌었다.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은 기존의 금강경 주석서나 해석서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해석으로 평가받는다.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다가 다시 한문으로 번역되며 그 뜻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강경〉이 선사의 뜻풀이를 통해 단순한 문자 번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전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살려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영역작업을 통해 〈금강경〉은 매우 쉽고 명쾌한 영어 단어들과 문장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경전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독자들이 불교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준다. 신간은 대우주의 진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한마음의 이치임을 보여주며, 안심 법문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일체 물질세계는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당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음이라.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내면에 놓고 관할지어다."

—〈뜻으로 푼 금강경〉 310페이지

대행 선사는…

1927년 서울 이태원에서 태어난 대행 선사는 1950년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한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산하를 유랑하며 10여 년간 수도 정진했다.

치악산 견성암에 머물며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던 대행 선사는 강원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1960년 사미니계를 1961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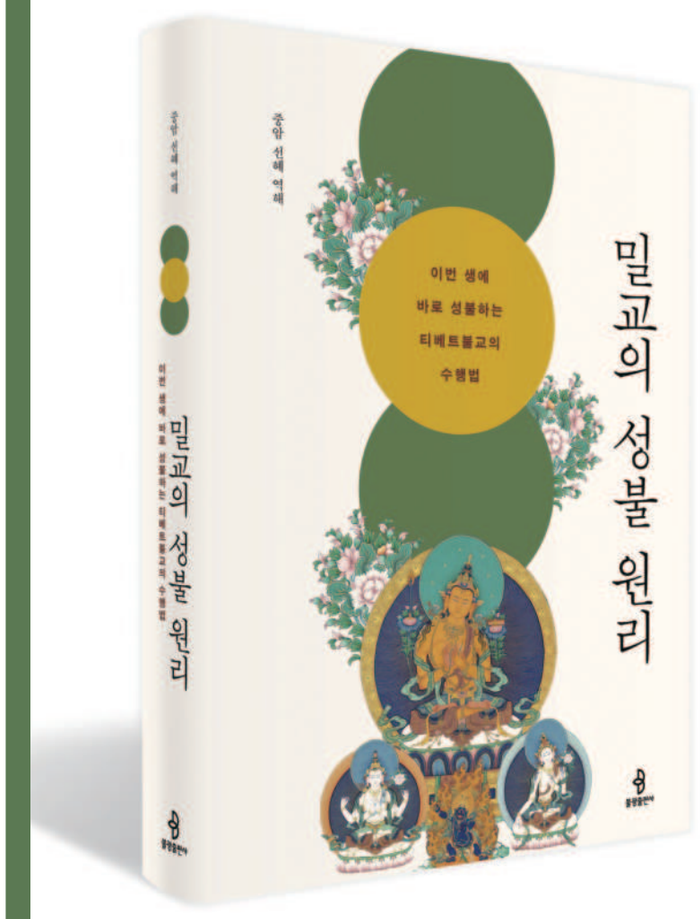
닥쳐오는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지켜봄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觀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1971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한마음선원의 전신인 대한불교회관을 세웠다.

대행 선사는 1982년 조계종 제1교구직할사암으로 등록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으로 개칭하고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30여 년 넘게 한마음선원에 주석하며, 크고 작은 법회에서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기와 여건에 맞추어 답을 해주며 불법의 진리를 가르쳤다.

포교대중화에 앞장선 대행 선사는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글 뜻풀이 경전의 보급, 법문의 영상 매체화,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제시했다.

선사 또한 4개 국어로 번역된 법문집 출간 등을 통해 전법의 발걸음을 세계로까지 넓혀 나갔다.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이었던 대행 선사는 2012년 5월 22일 오전 0시경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법랍 63세, 세납 86세로 원적에 들었다.



밀교 수행 원리의 요점만 가려 모은 티베트불교의 수행 교재
『시이꾸쑴랍쌜된메(因位三身行相明燈)』

바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 원리의 전모를 밝히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경론 번역에 매진 중인
중암 스님이 빚어낸 티베트불교 수행 비법의 모든 것

티베트불교는 현교와 밀교로 양분한다.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인 현교는 소승과 대승불교를 가리키고, '은밀하게 전수된 가르침'인 밀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교를 어느 정도 익힌 수행자는 밀교인 금강승 수행에 들어간다. 현생에서 삼신(법신·보신·화신)을 모두 성취하여 보다 많은 중생을 빨리 제도하기 위함이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면서 수행과 티베트어 경론 번역에 매진해온 중암 스님이 『시이꾸쑴기남샥랍쌜된메』의 티베트어 원전을 충실히 옮기고, 그 의미를 풀어내어 금강승 수행 비법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밀교의 성불 원리 이번 생에 바로 성불하는 티베트불교의 수행법
중암 선혜 역해 | 436쪽 | 양장 | 값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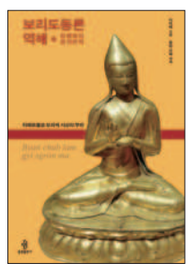
출간 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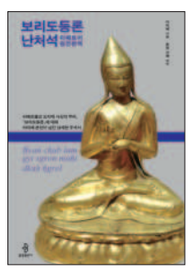
국내 최초 티베트어 원전 완역으로 만나는
티베트불교의 정수!



개정 완역
티베트 사자의 서
빠드마쌈바와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4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역
보리도등론 역해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해
368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역
보리도등론난처석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2쪽 | 양장
40,000원

한 生에 즉신성불을…붓다의 내밀한 가르침

〈卽身成佛〉



밀교의 성불 원리
중암 선혜 역해
불광출판사
3만5천원

티베트불교 수행교재 논서 번역
티베트 대장경 관련 논·소 인용
각주와 용어설명 등 부록 더해
밀교 입장 삼신 성취방법 제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티베트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밀교가 독자적인 종단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티베트 대장경에는 밀교부에 해당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경전과 논서가 전해지고 있어서 티베트불교나 밀교를 공부하는 대중이라면 반드시 티베트 대장경을 보아야 한다.

책 〈밀교의 성불 원리〉는 티베트불교에서 사용하는 수행교재이면서 다양한 수행법의 핵심을 모아놓은 논서 〈시이꾸쑴기남샥랍쌜된메(因位三身行相明燈論)〉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밀교의 성불 원리〉는 2009년에 발간됐으며, 이번 책은 판형을 바꾸고 미진한 부분들을 수정해 다시 출간한 것이다.

중암 스님이 번역한 이 책은 원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방대한 티베트 대장경의 관련 논과 소를 인용해 상세하게 원전을 풀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불교가 낯설 수밖에 없는 대중을 위해 번역어와 의미에 대해 꼼꼼하게 각주를 달고, '용어 설명' 등의 부록을 더했다.

티베트불교는 크게 현교와 밀교로 나뉜다. 현교란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이란 뜻으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티베트 포탈라궁.

이에 해당하고, 밀교는 '은밀하게 전수된 가르침'이란 의미로, '금강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편과 지혜가 분리되지 않고 금강석처럼 단단히 합일시키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현교와 밀교 모두의 궁극은 '성불'이다.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수행 목표로 삼는 반면, 대승에서는 3아승기 100겁 동안 윤회하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닦은 후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고통의 뿌리인 삼독심의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면 소승불교의 최고 성자인 아라한이 된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지향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번뇌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처의 삼신(三身), 즉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현교 수행을 어느 정도 익힌 수행자는 밀교인 금강승 수행에 들어간다. 현생에서 부처의 삼신 모두를 성취해 보다 많은 중생을 빨리 제도하기 위함이다.

책은 전적으로 밀교의 입장에서 삼신을 성취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대승에서 설하는 삼신의 내용과 성취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전에 현교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전제로 밀교의 가르침을 설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삼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삼신에 대한 학파 간의 논설들이 생략되고, 삼신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현교와 밀교의 상위한 논설에 대한 적절한 변석이 없어서 독자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 점을 인식하면서도 저자 또한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점 때문에 이전 책에서는 별도의 보충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책에서는 서문에 실린 달라이 라마의 '붓다의 삼신에 대한 해설'에서 현교 입장에서 논하는 삼신의 요점을 추려 설명하고 있다. 짧은 서문임에도 불구하고 삼신의 의미를 명징하게 설명하고, 밀교를 포함하는 모든 대승의 길이 공통적으로 부처님의 삼신을 동시에 증득해 무주처열반을 성취하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말로 번역된 티베트 경전이나 논서는 많지 않다. 그래서 밀교의 꽃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무상유가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우리 불교계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밀교의 성불 원리〉는 무상유가 수행의 원리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잘못된 편견과 사견, 오해들을 해소해 석가세존의 비밀한 가르침인 무상유가의 교의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전개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책에는 저자의 작은 사견도 없으며, 오로지 티베트 불교계에서 준거가 되는 논소들의 교설만을 인용하고 있다.

본래 무상유가 딴뜨라는 대소승의 교학을 바탕으로 단지 한 생에서 즉신성불(卽身成佛)을 구현하기 위해 최상근기의 선근자들에게 비밀방편으로 설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닦기 위해서는 먼저 대소승의 교리를 올바로 학습하여 삼승(三乘)을 회통하는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오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불신과 사견을 낳게 하거나 아니면 오해와 맹신을 조장해서 자타를 해치고 불법을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역자 중암 스님은 티베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에 매진했다. 현재도 네팔의 양라쉬에서 티베트불교 수행과 티베트어 경론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불교 수행법에도 조예가 깊어 〈티베트 사자의 서〉 〈보리도등론〉 〈보리도등론난처석〉 등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티베트 논서들을 여러 권 출간했다.

대승불교 수행 원형 '유가행파' 수행론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안성두 지음
운주사
2만5천원

유식학파는 4세기 초에 형성된 대승불교 최초 학파로, 유가행파 또는 유가행유식학파로 불린다. 이 학파는 최초의 논서인 〈유가사지론〉이 '불교요가를 수행한 사람들의 (수행) 토대'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유가행파의 사상은 외진 곳에서 수행했던 불교 요가행자 그룹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유가행파 이후에 나타난 모든 대승불교 수행법의 근저에 유가행파의 '고전적' 수행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대원불교 학술총서 25)은 대승불교 수행법을 최초로 정리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이론부터 실천까지 정리한 책이다. 유가행파의 수행론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론의 전체적 면모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유가행파 수행론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다양한 전통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구별해서 해명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먼저 유가행파의 주요 문헌들에 대한 체계적인 원전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 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문헌의 세세한 항목들의 차이를 논구하기 위해 불교사상사 전반에 걸친 깊은 지식과 통찰이 동원됐다.

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유가행파의 알라야식' '불교수행도에서 샤마타와 비파샤나' '수행도의 차제와 번뇌의 제거' '유식학파에서 법무아의 증득' 네 가지 주제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상의 네 가지 주제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고찰함에 있어 주로 〈유가론〉이나 〈해밀심경〉 〈대승장엄경론〉 등의 인도찬술 유가행파 문헌에 의거하여 설명했으며, 최근의 중요한 연구 성과들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책은 대승불교 수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행파의 수행론 전반을 자세하고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대승의 수행도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마음챙김 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느낌 색조'



나를 완성하는 더 깊은 마음챙김
마크 윌리엄스 · 대니 펜맨 지음 / 이재석 옮김
불광출판사 / 2만2천원

〈나를 완성하는 더 깊은 마음챙김〉은 기존의 마음챙김 명상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높은 차원의 변화와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최초의 느낌과 감각, 이른바 '느낌 색조(웨다나)'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의 연쇄반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법을 알려준다. 내면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서는 마음챙김 수련법이다. 총 8주간의 연습과 통찰을 통해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매사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느낌 색조[feeling tone]'는 마음챙김의 또 다른 영역으로, 마음챙김의 네 가지 토대인 사념처(四念處) 수행의 신수심법(身受心法) 가운데 수(受)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느낌'으로 번역하거나 실제로는 느낌에 깃든 즐겁고 불쾌하고 무덤덤한 느낌 색조를 말한다.

느낌 색조를 탐색하는 작업은 모든 마음챙김 수련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근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부분 암묵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다. 이번 책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제5장 1주차 '나의 중심 찾기'에서는 현재 순간에 '주의집중의 닻'을 내리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본다. 주의집중의 닻이란 마음이 특정 대상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떠돌 때 다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제6장 2주차 '잠시 멈추기'에서는 마음이 방황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제7장 3주차 '사물의 느낌 재발견하기'에서는 느낌 색조를 탐구한다. 마음이 방황할 때와 신체감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느낌 색조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8장 4주차 '균형 회복하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갈망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운다. 매일 느낌 색조가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제9장 5주차 '의식 아래에서 일어나는 느낌 색조'에서는 느낌 색조가 종종 생명을 지닌 듯 보이는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수련을 확장한다.

△제10장 6주차 '감정의 악천후 비행하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소중한 지혜를 일상의 삶으로 확장하는 연습을 한다.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힘든 일들, 다른 것으로 가장해 있지만 실은 자신의 기분과 삶의 질을 갉아먹고 자신을 탈진하게 만드는 일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제11장 7주차 '잃어버린 삶의 열정 되찾기'에서는 미루는 습관에 대해 살펴본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제12장 8주차 '모험은 계속된다'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지속하고 명상 수련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알아본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❻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자



▶한줄 요약
그림자 명상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분별과 집착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본래 맑고 깨끗한 자성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별없는 자리가 바로 '깨달음'

[오늘의 명상]
맑은 하늘은 너무나 깨끗하여
밝은 해가 그 빛을 부끄러워합니다.
본래 마음 너무도 맑고 깨끗한데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말 인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은 분별(分別) 이전의 상태, 즉 마음의 고향을 말하며, 햇빛과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말은 분별심을 가리킵니다.

영롱한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좋은 말과 아름다운 생각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빛은 어둠에 의해 빛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나쁘고 추한 것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의지하여 번갈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므로, 빛은 곧 어두움을 품었고, 아름다움은 추함을 품었으며, 좋은 것은 나쁜 것을 품었으니, 결코 빛이 빛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며,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아름답고 추한 이전의 상태, 즉 분별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자 합니다.

분별 이전의 그것은 과연 상상할 수도, 형용할 수도, 티끌도 발붙일 수 없는 청정법신(淸淨法身)의 그 자리로서, 빛과 아름다움마저도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고, 이를 깨침 또는 깨달음이라 합니다.

깨침이란 언어도단(言語道斷), 교외별전(教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경지를 말합니다. 말이 끊어진 상태, 즉 말을 붙일 수 없는, 말을 붙이면 절대 안 되는 자리를 언어도단이라 하고, 가르침 이외의 것, 가르쳐서는 안 되는 그 자리, 배워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교외별전이라 하며,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문장으로 나타낼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 경지를 불립문자라 표현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것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생사(生死)와 생멸(生滅)을 낳고, 인과(因果)를 낳고, 윤회(輪廻)를 낳고, 감정을 낳고, 시간과 공간을 낳고, 고(苦)와 낙(樂)을 낳고, 시비(是非)를 낳고, 일체의 사바세계를 낳으므로 결국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한 생각 이전의 상태를 본래 성품, 즉 불성(佛性, 부처의 성품)이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문자로 표현하는 이 자체가 상대적인 두 가지의 분별을 만들고 말게 되니, 이미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 중생, 특히 사람은 본래 분별 이전의 것, 굳이 표현하자면 자성(自性), 불성(佛性)이라고 하는 청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無明)이라고 하는 분별(分別)심이 생기면서 윤회고(輪廻苦)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업(業)과 윤회의 향연을 멈추고 분별 이전의 본래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그림자 명상이 있습니다. 그림자 명상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분별과 집착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본래 맑고 깨끗한 자성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사하고 품격 있는 마음으로 본래의 자성을 찾아 한 걸음 떼어 봅시다.

기도가 첫걸음입니다.

> **한 생각 일어나면 분별심 생겨나**
> **우린 불성이란 청정한 본성 내재**
> **'그림자 명상' 분별심 줄이는 수행**
> **분별 그림자 비춰 보고 내려놓자**

[오늘의 명상]
밤새 소리 없이 찬 공기 모아 모아
한 방울 물 되어 풀잎 끝에 매달렸네.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을
오늘밤도 풀잎 끝에 찬 공기 모아 모아.

자연 현상의 한 부분을 마음의 모양에 대비하여 시로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시간)를 의미하며, 찬 공기는 여러 가지 풍상을 담은 인연을 뜻합니다. 한 방울 물은 내 삶의 집착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풀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은 애써서 얻은 물질과 명예, 나의 상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나타냅니다.

태양은 나의 작은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연 현상으로서, 결국 눈 깜빡할 사이에 흔적 없이 공(空)으로 돌려놓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과 미련이 남아 또다시 한 방울의 물을 만들어 보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집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풀잎 끝에 매달린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거대한 인연 현상에 의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삶의 행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거대한 인연의 흐름에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얽히고설킨 인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밤(지혜롭지 못한 시간), 찬 공기(삶의 풍상), 한 방울의 물(가진 것), 풀잎 끝에 매달림(불안심), 태양(거대한 인연), 사라짐(결국 공으로 돌아감), 집착(나의 업)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 낸 업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놓음, 즉 방하착(放下着) 선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하착 명상은 현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풀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처럼,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관찰하며 무심(無心)의 상태를 지향해야 합니다. 방하착 명상은 우리를 집착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내면의 고요와 자유를 선사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업을 청정히 하면 갈등이라는 그림자도 모두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업을 멸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려면 우선 기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의 첫 순서는 생각을 줄여 분별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하고, 염불하며, 긍정하고, 베풀어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대승불교 수행의 원형 탐구!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역사상 대승불교 수행법을 최초로 정리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인도찬술 유가행파 문헌과 최근의 연구 성과들도 반영하여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였다.
안성두 지음/신국판/무선/396쪽/값 25,000원

원효가 구축한 불교사상의 전모를 보다
분황원효불교사상사
세계적인 불교사상가이자 철학자 원효의 사상적 지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심으로서 원효와 원심으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및 한국사상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고영섭 지음/신국판/양장/832쪽/값 50,000원

온 세대가 함께 읽는 〈소설 십우도〉
아이 찾는 아이
깨달음의 여정을 담은 십우도를 현시대 흐름에 맞게 재창조하여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재미,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린 성장소설이자 SF/판타지 소설이다.
김태라 지음/사륙변형/양장/16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정직·배려·봉사 습관화 ‘세계 1등 조계사’ 원동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이승현 신도총회장은…1958년 전라남도 해남 어룡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중 ·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거북선 같은 함선을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대우조선에 입사, 현대조선을 거쳐 1986년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 LCD TV’ PM 그룹장을 맡아 삼성TV를 세계 1등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현재는 스마트폰 · 자동차 등의 초소형 핵심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인팩코리아 대표다.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미동맹재단 부회장,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조계사를 세계 1위 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제27대 조계사 신도총회장에 이어 제28대 회장직을 연임한 이승현 회장이 취임 당시 내건 포부다. 언뜻 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이미 무명의 삼성TV를 세계 1위 브랜드로 만든 저력이 있다. 이제 그는 기업가로 쌓아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더욱 품격 있는 도량, 신행과 나눔이 어우러지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승현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친숙했다. 대대로 신심이 깊었던 집안 어르신들 덕분이다. 해남 땅끝마을 앞바다의 작은 섬 어룡도에서 태어난 그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해남 대흥사와 미황사를 자주 찾았다.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할머니를 따라 함께 기도하곤 했지만, 사실 그게 다였다.

큰 형을 따라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는 불교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학업과 장래를 위한 준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스스로 불교를 찾게 된 건 삼성 퇴사를 두고 깊이 고민하던 2005년 즈음이다.

당시 그는 삼성에 입사해 일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소했던 ‘전자상거래’로 ‘전자제품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시장에서 LCD 액정모니터 시장을 선도했다. 이후 한국 본사로 돌아와 ‘LCD TV 사업화’를 주도, 삼성TV를 세계 1등으로 올려놨다. 그야말로 그의 존재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쉴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치열하게 달려왔던 탓일까. 성공의 기쁨만큼이나 허탈함이 컸다.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직장생활 중 처음으로 평일에 연차를 내고 아내와 합천 해인사로 떠났다.

왜 해인사였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아는 스님이 있는 것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해인사에 도착해 대적광전에 들어간 그는 108배를 시작했다. 생애 처음 해보는 108배였다. 60배가 넘어가자 다리가 후들거리며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 힘겹게 절을 이어가던 중 가슴 속 깊이 묵혀놨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엉엉 소리를 내며 하염없이 울었다. 점차 주변 소음이 줄었고, 오직 자신과 부처님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삼성TV 세계 1위 브랜드 만든 경험 바탕으로

조계사도 내실 다져 “언제나 찾는 도량” 발원

매일 3분 선명상…‘일체유심조’를 마음에 새겨

“고작 108배도 제대로 못 하는 주제에 세계 1등 TV 주역이라면서 그동안 너무 잘난 척했구나 싶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의 맛, 성취의 맛에 취해 스스로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꼭 다시 해인사를 찾아 3000배를 올리겠다고 다짐을 한 그는 곧장 지리산 하동에 있는 작은 암자 금봉암으로 향했다. 섬진강 하구에 다다랐을 땐 문득 벅찬 감정이 올라와 지리산 중턱 갓길에 차를 세웠다.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쌓여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금봉암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새벽 3시, 새벽예불에 참여했다.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석가모니불 앞에서 정근을 했는데 또다시 눈물이 터졌다. “울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스님은 예불문과 경전을 건네며 “그저 오늘처럼,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일러줬다.

그렇게 그는 본격적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기 수행을 이어갔다. 집안 한 공간을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하고, 매일 금봉암 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렸다. 금강경을 읽고 사경도 했다. 108배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2시간 동안 꼬박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했다.

“회사에 가니 동료가 얼굴 좋아 보인다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8배를 권유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108배를 하면 분명 저처럼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해인사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삼성을 퇴사했다. 이 결단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2007년 대만 전자부품회사 인팩테크놀로지의 한국법인 ‘인팩코리아’를 설립했다. 인팩코리아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TV, 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인 수동소자류와 GPS안테나를 제조한다. 품질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와 LG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인팩코리아를 현재 ‘GPS안테나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이 지속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졌고, 직원들의 월급을 맞추는 것도 빠듯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간의 끊임없는 수행정진이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그가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있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부처님 가르침도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을 잡아줬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믿음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심어줬고, 결국 인팩코리아는 GPS안테나 시장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됐다. 그는 지금도 사무실 한 켠에 일각 스님이 선물한 일체유심조 액자를 걸어 두고,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는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그는 불교 발전에 일조하고자 2023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제27대 신도총회장을 맡았다. 기업인과 신도회장의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지향점만은 맞닿아있었다. 조계사를 ‘세계 1등 사찰’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는 단순히 규모나 사찰의 웅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그에 걸맞는 외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조계사에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도량이길 바랍니다.”

우선 그는 조계사의 환경 개선으로 외형적 변화를 이끌었다. 주지스님을 도와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대웅전에 의자를 설치했고, 주차장을 정비해 편리성을 강화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쉼터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국숫집 ‘승소’를 베이커리 가게로 재오픈, 친근하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했다.

선명상 대중화에도 힘썼다. 그는 불자들에게 선명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한 ‘5초 멈춤’ 선명상을 적극 추천했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3분 정도 선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내심이 많이 생겨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분이 길다면 5초 만이라도 멈춰보세요. 집착하는 한순간, 화를 내는 한순간, 그 한순간을 참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서울 탑골공원 옆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과 여름철 어린이 수영장 운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했다. 게다가 34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장들을 초청해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2025년 1월 제28대 회장으로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는 한편 신도들의 내면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고, 다른 사찰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화합하는 신행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세계 1등 조계사’에 다가갈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항상 정직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봉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면, 사찰에서도 일상에서도 조화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습니다. 신도님들께서도 정직, 배려,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함께 조계사를 가꾸어나갑시다.”

기업가로 성공을 거둔 이승현 회장의 여정은 이제 조계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조계사 마당에 설치된 물놀이장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이승현 회장.



지난해 12월 31일 봉행된 제28대 조계사 신도총회장 취임법회.



이승현 회장의 사무실 한 켠에 ‘일체유심조’ 액자가 걸려 있다.



조계사 만발공양간에서 급식봉사에 참여한 모습.

자비 24시 ❷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탁구교실에 모인 어르신들은 선수 못지 않은 기량으로 점수 대결을 벌였다.


리모델링한 복지관을 본 이용자들은 "복지관이 문화시설이 됐다"고 칭찬했다.


마케팅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관내에 VR, AR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놀라운드를 개소하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사진은 로봇축구 체험 중인 어린이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복지관도 브랜드 시대"…마케팅으로 다가서다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서울 중구 4개동 사회복지 선도 中
지역 · 주민 연결 'LINK'로 도약
복지관 브랜드化…홍보에 박차
복지관 색상, 비전 키워드 도입
리모델링으로 편안한 공간 구축
창의적 사업으로 지역 · 주민 소통↑
지역 네트워크 허브로서 도약 목표

"아이고, 탁구를 힘으로 하나 기술로 하지!"

날쌔게 날아온 탁구공을 쫓으려다 놓친 한 어르신이 소리를 내지른다. 공을 날려버린 반대편 어르신은 며칠 전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다며 팔을 들어 근육을 자랑해보였다. 공을 놓친 어르신이 심판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까지 흡사 고등학교 체육시간을 방불케 했다.

어르신들의 한바탕 힘자랑이 벌어진 이곳은 운동센터도, 체육관도 아닌 복지관 한 켠의 탁구교실. 서울 곳곳에서 모인 주민들은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며 삶을 다채롭게 꾸리고 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 10년차 김태선(73, 탁구교실 회원) 씨는 복지관이 문을 여는 날마다 '출근'하는 모범이용자다. 우연히 알게 된 복지관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힘찬 운동까지 겸하다 보니 건강도 회복했다.

김 씨는 "재미삼아 시작한 탁구교실 덕분에 혈당 수치가 좋아지고 친구까지 늘었다"며 "변화를 느끼기 전까지는 복지관이란 단순히 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생활을 탈바꿈시키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술회했다.

이용자 자치운영위원회 운영진 경험이 있는 김 씨는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관 홍보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적절한 사업과 프로그램 있음에도 홍보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없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이 좋은 사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잠재 이용자들을 위한 효과적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즘 복지관이 가진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용자가 말한 복지관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처럼 홍보마케팅에 진심인 복지관이 바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복지관 브랜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의 4개 동(중림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을 담당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복지관 홍보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시설 리모델링,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역량 교육까지 일궈내는 중이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거치며 '전략기획팀'을 신설한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마케팅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팀에서는 복지관 브랜딩을 위한 다방면의 방편으로 복지관의 운영 방향을 알리는 기자간담회, SNS 운영 등을 구상했다.

가장 중요했던 핵심 작업은 복지관의 키워드화였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더욱 잘 기억하도록 정의한 단어는 바로 'Link(링크)'. Link에는 주민들의 삶(Life)과 선한 영향력(Impact), 마을과 이웃(Neighbor), 지식과 경험(Knowledge)을 연결한다는 뜻이 담겼다. 지역과 주민을 잇는 복지 네트워크 허브로서 역할하길 바라는 중림종합복지관의 비전이 'Link'에 함축됐다.

복지관 인테리어 역시 혁신을 거쳤다. 사업뿐만 아니라 직원, 시설환경까지 종합적인 만족감을 제공해야 이용도가 높아지는 복지관 특성상 새로운 변혁이 필요했다. 복지관만의 대표 색깔을 붉은 빛깔의 벽돌색으로 정하고 밋밋했던 벽면과 시설물에 색칠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직선적이고 딱딱했던 시설물 역시 곡선형의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리모델링 후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복지관이 편안한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칭찬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자기 역량 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 직접 이웃들과 만나 사업을 시행하는 이들을 위한 역량 교육과 정서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이해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창의적인 사업은 창의적인 복지사에게 나온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소통과 화합을 일궈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통 능력과 창의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덕분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적인 복지관 브랜딩을 통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알리고 싶은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주민 간의 소통을 늘려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웃기웃' '동네나눔밥집' '늘품학습센터' 등이 이웃들과 만나는 중이다.

'이웃기웃'은 고시원 등으로 대표되는 비적정 거주지의 고립가구들을 발굴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고립된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이웃을 돕는 '동네나눔밥집'은 동네 상권까지 활성화시킨 효자 사업이다. 복지관에서 식사 쿠폰을 제공해 취약계층 주민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올려 상생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시작한 동네나눔밥집을 통해 현재까지 약 1750여 취약주민이 지원받았고 영세 소상공인 요식업소 45개소의 총 매출금액 4억4600여 만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탁구, 댄스, 어학, 태극권 등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늘품학습센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에만 주민 800여 명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늘품학습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복지관 동아리를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권장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커뮤니티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브랜딩'을 택한 복지관의 행보는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 이해경 관장은 복지관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모체이자 지역 대표 브랜드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올해 개관 13년차인 중림사회복지관은 함께한 직원과 주민들이 있었기에 성장해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과 마을을 잇는 Link, 저희가 만든 미션처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Q. 사회복지에 대한 원력을 세우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A. 사회복지학과 재학 당시 봉사활동과 실습 현장에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느꼈어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했죠.

Q. 복지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A.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재임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들의 의견을 정책제안서로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정책이 서울시 노인복지관 전체에 배포되고 프로그램으로 꾸려지는 과정을 보니 너무나 뿌듯했어요. 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만들 수 있어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과도기였다고 생각해요.

Q. 관장 부임 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나요?

A. 직원들 스스로 가진 뛰어난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했어요. 우수한 직원들이 만든 우수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에도 매진하려고 했죠. 지금은 진행 단계이지만, 앞으로 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싶어요.

Q. 사회복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A.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말 온갖 일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실패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몸소 느껴봐야 이후에 더욱 좋은 사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어싱과 온열로, 건강한 잠의 시작

※ 어씽(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씽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숨 어싱베개 (12만원 상당) 증정


어싱단자 포함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그래핀탄소어싱 온열매트(팥/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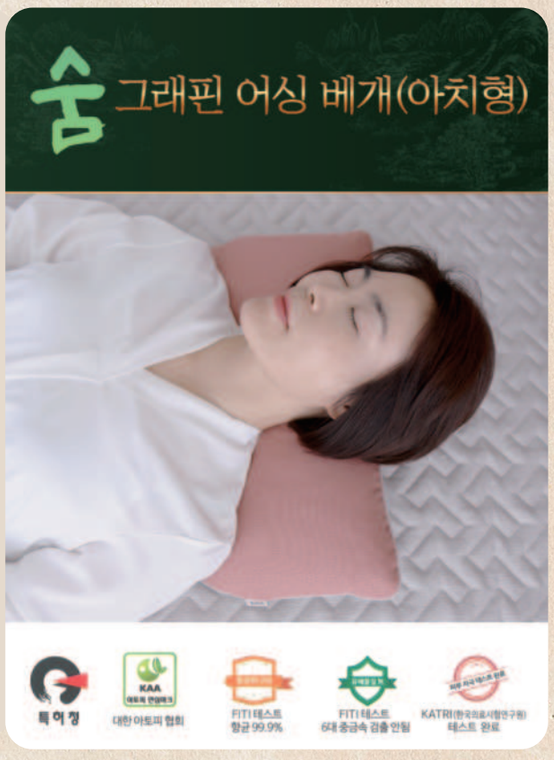
프리미엄 어싱매트 (팥)_싱글
판매가 2,380,000원



프리미엄 어싱매트 (팥/매쉬)_싱글 판매가 2,380,000원
프리미엄 어싱매트 (매쉬)_퀸 판매가 2,700,000원



케겔 음파운동기 판매가 1,580,000원



숨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판매가 120,000원
숨 그래핀 어싱 베개 (일자형) 판매가 95,000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8호 | 15 | 전면광고

입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며 몸으로
계를 범하지 않으면 능히 도를 얻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포교원건물
- 면적 : 120평실평
- 3층/5층, ev유
- 공원옆 건물, 주차가능
- 매가 : 1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매매 · 월세 가능합니다.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총평수 : 380평
- 대웅전, 산신, 용왕, 노천 해수관음상
- 요사채 30평(현대식 부엌)
- 매매 전세 가능

010-8409-824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옆
- 1층 법당 外 약 60평
- 보증금 6000만원
  월 세 120만원
  (별도 2,3층 복형 가능)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군청 종합민원실 맞은편 능인선원 3층 건물 전체
- 3층 대웅전, 2층 아미타전
- 법당 및 고가 불교용품 포함
- 금액 : 7억 5천

010-3648-4997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405평
- 대웅전 : 20평, 외5포, 내7포 일주문 주3포, 창건 50년
- 가액 : 13억

010-4600-7084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공 고

무상 스님

주소 : 진주시 집현응석로 234-13

상기 본인은 본재단의 사찰 해룡사 주지로 임명되어 2025년 2월 1일부터 소임을 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재)법화일승본화종 이사장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 리 통 증
무 릎 통 증
어 깨 / 목 통 증
손 목 / 발 목 통 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18호 | 16 | 전면광고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태산불교 인재 모집

태산불교에서 불심 깊은 비구니 또는 보살을 모십니다.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853-1
불심을 바탕으로 수행과 봉사에 함께 할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문의 010-4751-1667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

1. 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참여가능)
• 불교신자 및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경전반 :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제반의식
• 의식반 :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 등
3. 교육일정
• 경전반 : 2025년 3월 17일(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 의식반 : 2025년 3월 11일(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4. 교육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향로용 유리알 ##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③ 혜화문 – 〈연화면경〉 사천왕과 발우

면면히 계승된 붓다의 행지만이 영원할 뿐

결국 어떠한 것이 기특한 것일까? 그것은 정자의 발우가 지금 천동산으로 옮겨왔으며 오직 밥을 먹을 뿐이다.
도겐 〈정법안장〉 '발우'

우리는 동대입구 6번출구역을 나와 공자의 세계가 아닌 붓다의 세계를 오르기로 했다. 그대로 언덕을 올라가도 좋지만, 옆으로 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대뜸 우리를 맞아주는 건 사명대사 상이다. 육환장을 진 훤칠한 스님을 보니 전쟁이라는 시대의 한복판에 나타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지남이 저 지팡이였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반대로 육환장을 지고 시대의 한복판이 아니라 산 중으로 들어간 여러 스님이 생각난다. 설잠 스님이나 성철 스님과 같은 분들이다.

성철 스님이 육환장을 짚은 건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고 결심한 봉암사 결사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한다. 그때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사, 발우 그리고 육환장의 소지가 있다. 가사는 지눌 스님의 것을 본받아 비단과 같이 좋은 옷감이 아니라 괴색의 광목으로 소박하게 했다고 하며 육환장과 삿갓은 탁발을 위해 다시 도입한 것이라 한다. 발우는 목발우에서 쇠발우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 색이 바래버린 가사나 탁발을 위한 육환장은 청빈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발우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동국대학교의 중문인 혜화문에 다다른다. 사명대사상으로부터 50보가 좀 넘을까 말까 하는 사이에 성철 스님의 발우까지 생각의 꼬리가 물고 물어진다. 혜화문은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의 이름이 남아있는 곳으로 사찰로 말하면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에 해당한다. 단지 솟아있는 기둥 두 개에 철문이 달려 아무런 내용이 읽히지 않는 모양새이지만 어떤 가람의 공간을 결정짓는 경계선이라는 의미에서 사천왕문이라고 해야할 듯 하다.

사천왕은 동남서북의 각각 네 방향을 지키는 신으로 붓다께서 성도하시자 찾아와 그분을 수호하고 보필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깨달은 이에게 어울리는 식사에 발우가 필요함을 알고 하늘에 보관 중이던 과거불의 발우를 가지고 와 붓다께 전달하는 역할을 했음이, 사명대사 상으로부터의 짧은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나게 된다. 그 발우는 이후 정법의 상징으로 불교도들의 성물이 되어 오랜 시간 전달되게 된다.



혜화문은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의 이름이 남아있는 곳으로, 사찰로 말하면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에 해당한다.

가사 입고 가져야할 몸가짐 있고 발우 펼친 이상 법식 베풀어야
불불조조로부터 내려온 가사와 발우가 행지이면서 불법의 전부

언젠가 선종이 불립문자를 표방한 이후 교종의 경전에 대한 안티테제로 가사와 발우가 불법의 상징물로서 채택된 것이란 설명을 본적이 있다. 정밀한 논증도 아니었고, 이미지의 극적 대조를 위해 붙여진 이론 같아서 설득이 되지는 않았다. 차라리 저번부터 계속 인용하고 있는 도겐의 〈정법안장〉에서 '행지(行持)'를 읽었을 때 어렴풋이 가사와 발우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가사와 발우는 의식주의 생활을 규범지어 버리는 도구들이다. 가사를 입은 이상 가져야할 몸가짐이 있고, 발우를 펼친 이상 법식을 베풀어야 한다. 이는 가깝게는 현세의 붓다인 석존, 멀게는 여러 과거의 붓다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이런 붓다들로부터 면면히 계승되어온 행위들을 그대로 받들어 지니는 것, 이것을 행지라고 한다. 불불조조로부터 내려온 것은 사실 이 가사와 발우의 행지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경전을 들지 않더라도 가사와 발우는 불법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인도든 중국이든 붓다의 정법안장을 이어 받아온 상징물은 경전보다는 이 가사와 발우였다.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경전이지만 〈연화면경〉이라는 경전에서 붓다께서 열반한 이후 중생들이 의지할 사리와 발우의 내용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사천왕들은 다시 나타나 붓다께서 열반하시는 모습에 슬퍼하며 무상함에 대해 노래한다.

그런데 붓다께선 이런 사천왕의 게송을 들으시고 갑자기 발우 얘기를 꺼내신다. 붓다께서 사용하신 발우는 앞으로 북인도에 해당하는 카슈미르, 경전상에서는 계빈에 이르게 되며, 이 발우와 함께 계빈에서는 불법이 융성하게 피어난다고 예언하신다. 즉 정법의 기간이 계빈을 중심으로 연장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듯이 계빈의 융성한 불법도 연화면이라는 외도가 불법을 파괴하고자 세운 원으로 그 나라 왕으로 태어나 붓다의 발우를 깨버릴 것이라고 하며, 이 깨어진 발우가 우리가 사는 남섬부주를 돌면서 불법을 유지시키다가도 어느 날엔가 사라져 버린다고도 예언하신다. 이때가 바로 말법의 시작이다.

여기서 남섬부주에서 자취를 감춘 발우는 홀연히 용궁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어 수미산 중턱의 여러 하늘세계를 거쳐 다시 용궁으로 돌아와 미륵불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 이 발우는 어떻게든 현재의 붓다에서 미래의 붓다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과거칠불로부터 미륵불로 이어지는 불불조조의 일이며, 붓다와 붓다만이 아는 유불여불의 일인 것이다. 발우는 공양받는 그릇이 아니며, 가사를 두르는 것도 옷을 입는 일이 아니다. 그저 내려온 행지일 뿐이다. 붓다의 육신은 덧없다. 붓다의 행지만이 영원할 뿐이다. 행지를 채우는 발우의 깊이는 손가락 세 마디보다는 더 깊을 것이다.

깊이에 대한 질문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멜랑콜리를 자아내게 한다. 〈향수〉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단편인 '깊이에의 강요'에서 주목받던 신인 작가가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론을 듣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해 가면서 깊이를 찾아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깊이가 없다는 사실 뿐이고, 그 끝은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의 작품만은, 혹은 표현하려 했던 나의 심상만은 자신의 고유성을 갖기를, 남이 생각해보지 못한 저 깊은 숙고와 사색이기를 바라지 않는 예술가는 없겠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사유되지 않았던 것도 표현되지 않았던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무한한 고통의 굴레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하나인데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꽉 찬 고유성과 깊이에 대한 자만은 그 자체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짧은 견해로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붓다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자아의 부재를 명확히 하셨다. 이런 누구보다도 깊은 숙고와 사색을 사성제로 표현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견해로 그 분께서는 스스로가 우쭐해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시간을 뛰어넘어 오직 과거불의 행지를 떠올리셨을 뿐이다. 모든 과거불은 이렇게 행하셨다. 석존께서는 이를 받아 지닌다. 행지는 무아일 뿐이다.

〈동국대 박사〉

탁발과 노동을 함께 하며 민중의 삶으로 들어가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⑥ 삼계교와 무진장(2)

"신행은 상주 법장사에서 구족계를 버리고 친히 노역에 종사하며, 단의(單衣)로 절식하며, 모든 도속을 비경(悲敬)으로 예를 하였다."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을 만든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수상했습니다. 수상의 이유는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창안한 '미소금융'에 있습니다. 그는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다는 이유로, 빈곤층에게 대출을 기피하는 금융기관과는 반대로,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대출 자격을 줬습니다. 그라민 은행은 하루 10%에 달하는 고리대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 빈곤층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눠준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었지만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이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소개한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의 미소금융과 삼계교의 무진장(無盡藏)은 큰 틀에서 보면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삼계교의 창시자 신행 선사와 미소금융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빈민을 위하여 보시하는 일은, 망해도 성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정부에서도 미소재단을 창립하는 등 비슷한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출원금 회수율을 매우 높게 요구하는 미소재단의 운영방침과 미회수 대출금의 책임과 원금보존 및 운영경비 최소화라는 상업금융의 기준이 큰 허들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전무했고, 그러다보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상업금융의 논리를 고수해야만 하는 모순이 존재해 활성화돼지 못했습니다.

삼계교는 무진장을 통해 민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심혈의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특히, 신행 선사는 구족계를 버리면서, 친히 노역에 종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이는 당시 불교 풍토에서는 파격이었습니다. 승가에 '노동'을 가져온 최초의 인물은 바로 신행 선사였습니다. 노역과 하루 한 끼의 걸식으로 수행 정진한 것은 절대로 쉽게 이뤄낼 수 없는 두타행입니다.

삼계교가 운영한 무진장의 기본 사상에는 무소유가 바탕합니다. 삼계교도들은 탐욕에 대한 무소유를 고취시키고, 상걸식(常乞食)을 주장했습니다.

삼계교도의 수행관을 전하고 있는 '대근기행법'의 대목 중에는 '걸식'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①파병단(破病檀): 좋은 음식을 볼 수없는 두타행에 의해, 무시이래의 탐병(貪病)을 깨트리는 것.
②유작단(有作檀): 걸식의 음식을 항상 '일체대중과 함께 먹는 것' 결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4등분하여 본인·동행자·빈곤자·귀축(鬼畜)과 나눔.
③무작단(無作檀):자신의 몫을 스스로 받지 않아, 소극적으로 베푸는 것.
④도생단(導生檀):모든 중생을 걸식으로 인해서 성도(聖道;성인이 길)로 인도하는 것

이처럼 삼계교도는 걸식으로 얻어진 것들을 모든 생명과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이는 삼계교가 표방하는 '취락불교'로 이어졌습니다. 산중에 있지 않고, 민가에서 민중과 함께 한 것입니다.

마을에서 걸식하면서 허물어진 마을 담장을 보수하고, 작은 댐을 보수하여 논에 물을 확보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삼계교도들의 수행 중 하나였습니다. 물질로만의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서 보시하며 민중과 함께 하는 것이 삼계교도의 삶이었습니다.

〈송림사 주지〉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❸ 입춘_부산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입춘의 순우리말은 바로 '봄 설', 한해의 첫 절기이자, 따뜻한 봄을 여는 입춘은 설에 진배없는 의미를 지닌다.

'희망'의 다른 이름 '봄'…봄이여 어서 오라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해동용궁사는 손을 뻗으면 닿을듯한 푸른 바다, 수변 바위와 해변을 따라 자리한 이국적인 모습으로 사랑받는 부산의 명소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해수관음대불은 매일 아침 도량을 가득 채우는 장엄한 일출과 함께 더욱 현현히 빛난다.

시인 고월(古月) 이장희(1900~1929)의 시 안에서 봄은 이토록 살아있다. 고운 향기로, 금방울 같은 눈동자에 흐르는 미친 불길처럼, 포근한 졸음 뒤에 끝내 푸른 생기가 뛰어노는.

일제강점기, 짧은 생을 우울과 부조리에 대한 결벽 같은 투쟁으로 살았다는 한 슬픈 시인에게도 봄은 이토록 어여쁜 것이다. 길고 긴 겨울의 문이 지루하게 닫히는 동안, 저 멀리 빛으로 열리는 또 다른 문이 있다. 마침내 시작되는 새로운 계절의 여정, 바야흐로 '입춘(立春)'이다.

사계절의 시작, 입춘(立春)

1년 365일 지구는 스스로 자전(自轉)하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맞이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저마다의 자리에서 땅을 굴리는 이들의 노고야말로 새 계절을 부르는 동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엄혹한 계절을 이기고 피어나는 새잎의 앳된 기지개, 언 땅을 뚫고 우뚝 솟아나는 산야초의 기개가 그렇다. 또 매일 찬 바람을 이기며 삶을 일구는 보통의 사람들의 하루가. 봄은 그렇게 지구를 딛고 선 모든 생명의 인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그리고 입동(立冬). 옛사람들은 한 해를 가르는 4번의 큰 절기마다 '立(설립)'자를 써서 우주에 새로운 기운이 북돋는 현상을 표현했다. 어쩌면 입춘은 모든 계절을 통틀어 그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절기인지도 모른다. 수 개월간 이어진 동장군과의 승부 끝에 끝내 승전고를 울리는 것은, 세상을 뒤덮을 듯 내리붓는 겨울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손 뻗는 자그마한 새순이니까.

태양 황경(黃經) 315도.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새해는 시작되고, 세상은 다시 깨어날 준비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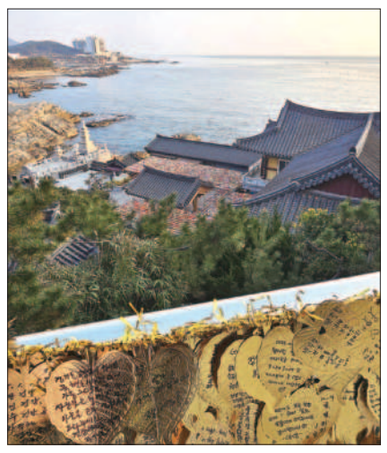
봄을 만드는 사람들

농경사회를 이룬 우리 민족에게 입춘이란 한 해의 명운을 점치는 관문이었을 것이다. 옛 왕실과 지방 관청이 주도한 많은 의례 행사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입춘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 주요한 의식이었다. 왕은 주연과 함께 춘번자(春幡子)를 내리고, 또 관리들에게는 하루 휴가를 주었다.

춘번자는 입춘을 기념하는 비단 깃발로, 사대부들은 이날 관모나 옷깃, 머리에 춘번자를 꽂고 하루를 보냈다. 또 민간에서도 굿과 제를 지내고, 춘번을 만들어 나뭇가지마다 걸어 입춘을 축하했다. 봄을 반기는 마음이야 나라님부터 백성들까지 다르지 않았던 터다.

하지만 작물을 일구고, 소출을 내야 하는 백성의 간절함을 어찌 가늠하랴. 입춘날 여러 씨앗을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작이 든다는 것. 또 집을 깨끗이 청소한 뒤 체를 엎었다가 몇 시간 뒤 들어보면 곡식 한 알이 나오는데, 바로 그 곡식이 그해 풍년을 이룬다는 이야기까지. 내륙 지방부터 제주까지 이어지는 이 귀엽고도, 애잔한 속설들에는 한 알의 곡식에도 막연한 희망을 걸었던 옛사람들의 간절함이 머문다.

하지만 이런 간절함을 되려 자비와 공생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것 또한 그 보통의 사람들이다. 입춘의 오랜 풍습 중 하나인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 바로 그것. 적선공덕행은 입춘 전날 선행을 하는 것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길가의 더럽고 위험한 것들을 치우거나, 냇가의 다리를 손보고, 또 거지 움막 앞에 밥을 한 솥 지어 몰래 가져다 놓는 것과 같은. 옛사람들은 대가 없이 좋은 일을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액막이 방법이라 여겼다.



경내를 가득 채운 참배객들의 소원지. 사람들에게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준다.

동풍이 불고, 겨울잠 자던 애벌레가 눈을 뜨며, 물고기가 다시 물밑을 헤엄치기 시작하는 때. 옛사람들이 감지한 입춘의 모습은 이른바 해동(解凍)의 풍경이다. 그러나 정작 입춘 즈음은 한겨울에 지지 않는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 어쩌면 세상은 덥히는 것은 계절보다 한발 앞선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녹지 않은 성성한 눈발 속에서도 발아래 온기는 그렇게 퍼져만 간다.

부산에서 만나는 '봄 설'

입춘의 순우리말은 바로 '봄 설'. 한해의 첫 절기이자, 따뜻한 봄을 여는 입춘은 설에 진배없는 의미를 지닌다.

입춘을 맞아 부산으로 향한 것은 이 도시만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만나기 위함이다. 세밑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국제시장, 길을 걷던 젊은이들이 홀린 듯 빨려 들어가던 보수동 책방골목까지. 오랜 불경기의 시름 속에서도 이곳을 지켜온 생의 불빛은 여전히 강하고, 건재하다. 그다음 목적지는 바로 기장군에 자리한 '해동용궁사'. 해동용궁사는 손을 뻗으면 닿을듯한 푸른 바다, 수변 바위와 해변을 따라 자리한 이국적인 모습으로 사랑받는 부산의 명소.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주었던 터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은 바닷가 외딴 섬과 파도 몰아치는 험한 곳에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 해동용궁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해수관음대불은 이 순간에도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이들의 등대가 되어 곁을 지킨다. 그리고 그것은 빛으로, 매일 아침 이 도량을 가득 채우는 장엄한 일출과 함께 더욱 현현히 빛나는 것이다.

자비의 빛으로

드넓은 동해와 천지를 가득 메우며 떠오르는 일출. 그 빛을 한 아름 받아안는 해동용궁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엄하다. 이런 이유로 매년 새해면 이곳을 찾은 참배객들로 치열한 일출의 전장(戰場)을 이루곤 한다.

이른 새벽, 세상이 여명으로 물드는 시간. 해동용궁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마주한 광명전의 금빛 와불. 가만히 누워 미소짓는 그 모습으로 새벽의 고요한 사찰은 더욱 충만하다. 저 멀리 기장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고깃배와 그 뒤를 따라 날아오르는 새들의 모습.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어느새 말없이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은다. 그리고 이윽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 지구의 역사와 함께 매일 반복되는 그 빛의 기적 속에, 어제는 지평선 너머로 저물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달나라로 여행을 가는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봄은 희망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진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이 지구별을 힘껏 굴리는 모든 이들에게 어서, 봄이여 오라.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대행 스님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점프해서 뛰는것이 허공을 걷는것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질문 새해를 맞이하니 또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요즘은 사회 분위기도 암울하고 힘들지만 모든 게 일체유심조라,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예전에 6·25 때 모래톱에서요, 총이 막 날아오니깐 다리에 총알을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막 그냥 뛰는 거 있죠.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또 게으르면 그냥 꾀를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차차분해선 그냥 깔아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난 이제 죽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죽으니까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인젠 죽었다.' 하는 거요. 이 몸속에서 작용을 해 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콩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수·척추 관리인, 이 모두의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이건 첫째 앞에 선 선두자가, 마음이 '야, 이건 다 죽겠구나. 인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줄줄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그렇게 남이 이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악하고 선한 거를 다 놔야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에 정히 급하고 그럴 때, 이 국난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면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벌써 미리미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 인제는 꺾어지고 다 저거 한 연에 이걸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모두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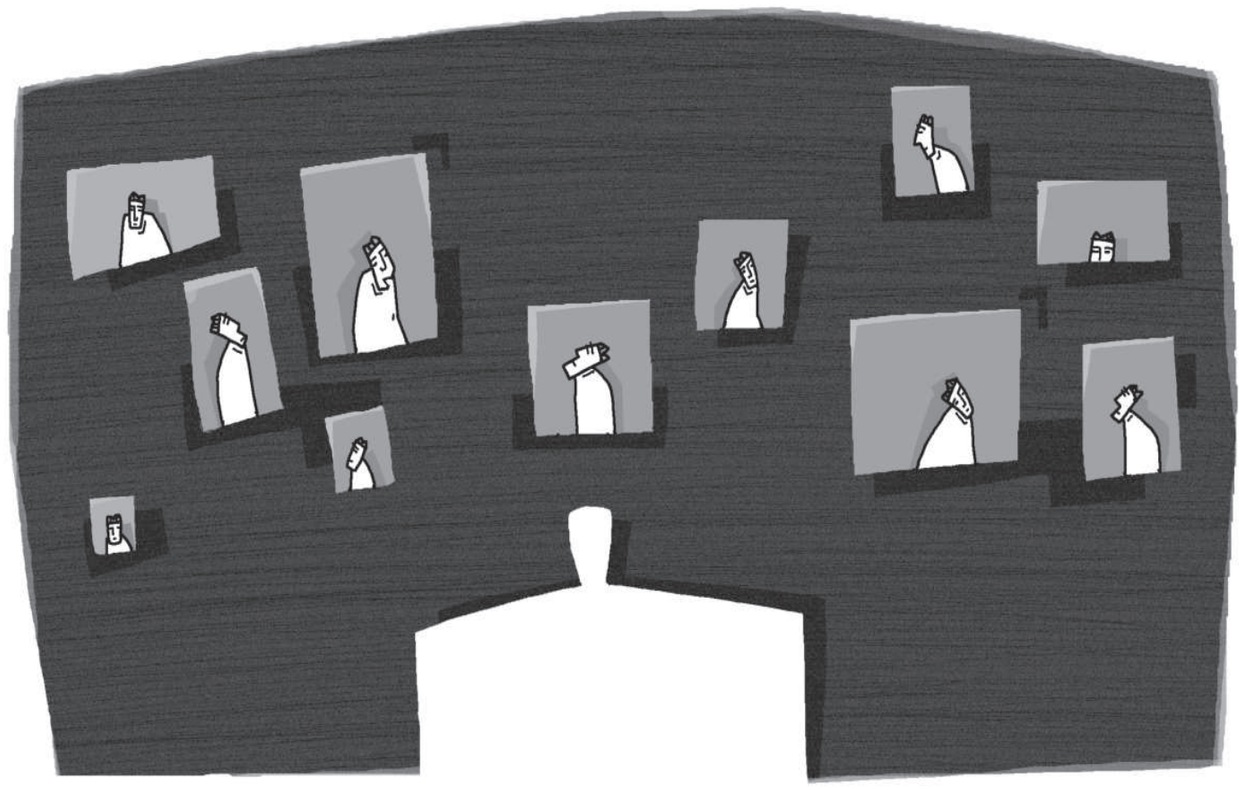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면 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다 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도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내 탓으로,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둘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이 되고 부유하게 늘어 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을 좁게 쓰는지 말입니다. 꿈을 꾸고도요, 그것도 맘대로 못 해요. 아, 그거 그냥 주인공에다 탁 놓고 '그것도 거기에서 화해서 보이는 거니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탁 놓으면 될 거를 '이게 꿈이 나쁘니 무슨 일이 생길까,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붙지를 않아요.

이 모두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부처님의 그 뜻의 길을 좇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방편의 길! 이것이 바로 씨를 여물게 하고, 즉 말하자면 '귀신 방귀씨를 얻어서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잘 길러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신 방귀씨라니 그게 뭔가? 귀신 방귀털이라니 뭔가?' 이러죠. 체가 없으니 그것이 다 귀신 방귀털이지 뭡니까?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먹여 키워야 그게 정상적으로 키워지지 체가 있는 것이 체가 없는 거를 키우려면 키워집니까, 그게?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점프를 해서 뛰는 것이 허공을 걷는 건데, 이 마음도 그렇게 점프하듯 그냥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지고 불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함이 없이, 함이 없이 모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짓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근본 마음자리에다 무조건 맡기고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서 점프하시면요,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인생을 편안하고 보람 있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시공이 없는 도리 알고 싶어요

질문 우리의 실상은 원래 시간과 공간도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마음으로 딱 체험을 못 하니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이 실눈이라도 좀 뜰 수 있도록 다시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때 옛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습니다. 우리 근본 자리는 그대로 묵묵히 작용하면서 영원한 그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살아 있기에 '옛거다, 옛것이 아니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 육체로 인하여 옛날이다 지금이다 조상이다 또 그 조상의 자식이다 말들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이다 재작년이다, 올이다 내후년이다 하고 말들을 해 놓은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천차만별로 살아나가자니 문란치 않게 질서를 지켜야 하겠기에 우린 이름을 지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속된 꿈이지마는 지속된 실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된 삶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의 도리가 생로병사라고 하고 또는 고집멸도 사제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진화력을 얻어서 탈바꿈을 하고 자꾸 지속된 한 발을 떼어 놔야겠기에, 결국은 진화라는 과정에 의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 과정은 고가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해서 고집멸도라고 말씀을 했겠죠. 사계절이 그대로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이러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 19면에서 계속

돌아가듯이 인간도 추위를 무릅쓰고, 또는 더위를 무릅쓰고, 또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떨어졌다 피고 떨어졌다 피고 이렇게 지속되는 나날을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계발을 한다면, 나무와 나무를 접을 시키듯 열매와 열매를 또 달리, 모양이 달라져서 나오게 만들고,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진화력으로서 창조력을 키우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정신 개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마음의 실상이, 즉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마음으로서, 한마음으로서 존재가 되고 근본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촛불이 있다 할지라도 성냥을 그어 대지 않으면 불이 되지 않듯이 그거는 누가 켰든 간에 내가 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켜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 아니라 마음의 불이죠. 그러니 안팎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작용이, 전부 여러분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그 생명의 실상이 있기에, 거기는 없다 있다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이기에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실상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도 몸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자기라는 그 자체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움죽거리고 있죠. 꿈을 꿨다 안 꿨다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지마는 항시 밤낮이 없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잠을 자도 잠이 없고 낮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없고. 여러분은 몸이 다니니깐 내가 다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나 아닌 참나가 있기에 바로 내가 움죽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꿈에는 꿈대로 내가 움죽거리는 게 아닌가요? 바로 나 아닌 내가, 그 분신이 움죽거리고 있는 그건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환상입니다. 생각 없는 일을 하는 법 없고 생각 없는 일을 설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나기 이전에 인연의 소치로 만난 인연들이죠. 인연들이 바로 꿈에는, 우리가 하루를 지낸다 하면 바로 일 년을 지낸 듯이, 하룻밤에 일 년을 지낼 수도 있고 삼 년을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수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살다가 끝을 마치지도 못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선 깨다 보면 새로 한 시다 새로 두 시다 세 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깨 보니깐 그렇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 도달해 있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시간을 따지면서 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는데 왜 그걸 따져야 하느냐? 한두 사람이 산다면 따질 필요도 없지만 천차만별로 모두 여러 생명들이, 아니 여러 물체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시간도 정해 놓고 달도 정하고 해도 정하고 날도 정했죠.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는 충성이나 효도도 없을 것이고 아주 고등 동물의 그 행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질서를 지키게 해 놓은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도 현실에도 미래에도 우주 삼세를 두고 말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하면 억겁을 통해서도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그 몸 바꿈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과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과거에 수없이 탈바꿈을 해 가지고 자기 형상을 형성시켰건만 자기는 그것을 아예 모르는 채, 지금 현실의 형성된 나가, 바로 내 모습이 난 줄 알고 시간만 따지고 급급해서 날짜만 보고 앨 쓰고, 나가 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고 옛사람들도 없다고요.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작용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자기의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인연의 업보를 지을 수도 있고 인연의 업보를 부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의 업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사를 자기가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보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습은 지속될 수 없지만 참자기는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참나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입니다. 유생 무생이 한데 합쳐지고 일체 만물이 다 합쳐진 이 내공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기가 할 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깐 그대로, 아니다 기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 이 자리에, 꿈이다 생시다 이러한 게 붙지 않는 자리,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 이런 말이 붙지 않는 자리, 생사윤회라는 말이 붙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달을 할 수 있고 상신할 수 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를 받지 않으려면

질문 불교에서는 인연과보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이 인과를 받지 않고 그냥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같은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데 중심, 심봉과 같고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심봉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그 자체를 볼 때 그 심봉이 꿰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핵과 같은 심봉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거는 움죽거림이 없이도 힘을, 아주 광대무변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길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는 바로 핵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움죽거리는 바람에 바로 이 물질인 나의 이 기계는 돌아갑니다. 그래 삼위일체가 구성돼 가지고 계합이 돼서 같이 길고 짧음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쪼그만 거 하나를 우리가 볼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리가 터지는 거죠.

그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면, 정맥 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속에서 그 수억 마리의 생명들이 바로 세포나 오장육부의 모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속의 의식들이, 즉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지금 죽은 송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들을, 아, 이 마음들과 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친 이 자체, 바로 그 속에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가난도 나오고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아이 글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야,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또 될 때는 또 되고. 이런 것도 다 전자에 내가 한 거만치 인연을 가지고 나온 바로 인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몸 하나가 나와요. 그럴 때 회심곡에도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 이 세상에 탄생하니 20, 30이 당도해도 철이 없어서 그 부모의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이 피를 모두 받고 또는 살을 받고 뼈를 받은 게 그 정자 난자, 엄마 아빠에게서 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있는 거는,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그 살면서 행해 온 행적이란 말입니다. 행적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같이 이렇게 지금 포함된 겁니다.

이걸 다 녹이려면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다 놔야 그것이, 전자의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이 다 녹아서 마음이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져 가지곤 천백억화신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로 화한다 이거죠,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그럼으로써 내 이 혹성 하나에 나가, 그냥 보살들이 수호하고 다니죠. 보하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강도가 온다 하더라도 강도가 칼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그 수호신이 수호하고 다니죠.

그러니 그 인과를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만들려면 다 거기 놓아야 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다 자기한테서, 거기 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 무엇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대로 자기 중심 자리에 다 맡겨 놓으셔야 합니다.

> 모든 것을 다 자기 근본 마음자리에다 무조건 맡기고
>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서 점프하시면,
>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인생을 편안하고 보람 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와 인연이 없는 것은

질문 우리가 이 마음공부와 인연이 된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생계를 꾸려 나가기 바쁘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공부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본인의 잘못이겠습니까.

답변 그러니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법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항력을 느끼고요,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저항력을 느끼고 그러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저항력이죠. 나는 그냥 얘기만 해 드릴 뿐이지, 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믿으라는 데, 자기 믿는 것에 저항력을 느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마음 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도리를 몰라서 다음 생에 이 세계에 또다시 짐승으로나 또 사람으로나 좌천되지 않느냐. 또 그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마는 본래 천성이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그런 착한 분들은 저절로 저절로 그런 인연이 닿고,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뭐, 저는 누구한테서 들어서 그랬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나무한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돌부리를, 아,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독하니까. 나무를 봐도 참 내 생명같이 아끼면서 그 나무 한 가장구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내가 살기 위해서 네 가장구를 꺾으면 네 가장구에서 피가 나올 테지.' 하고서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린 맘에 그런 그때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 앞에 열쇠가 주어지지, 착하지 못한 사람 앞에는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연도 주어지지 않고요.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③ 힘 빼기

'힘' 빼고 무의식의 자연 호흡 회복해야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힘 빼기'이다. 특히 화두 참구와 같은 사마타 수행의 경우,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기에, 집중이라는 강한 의도가 일어나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호흡' 또는 '이뭣고' 등 집중 대상을 설정하면, 자신이 기존에 노력하던 방식대로, 마치 100m 계주인 양 주먹을 꼭 쥐고 목표를 향해 힘껏 뛰게 되는데, 이는 처음이라 달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집중과 긴장

수행에 있어 하나같은 강조점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다.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하되 힘을 빼라니?" '집중과 그것의 유지'를 위해 당연히 용을 쓰게 되고,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긴장을 풀면 집중이 안 되고, 집중하면 긴장이 들어간다. 테니스 선수들이 스윙할 때 어깨에 힘을 빼는 데에만 3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만큼 '집중과 긴장'은, 아직 자아와 분리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모르는, 수행 초보에게는 어려운 숙제다.

하지만, 꾸준히 좌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힘이 빠지는 때가 온다. 필자가 사마타 수행을 처음 접했을 때, 약 8시간이 넘으니 몸의 힘이 저절로 빠졌던 기억이 난다. 몸의 무상성으로 인해, 긴장 상태가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처음 좌선할 때는 저절로 힘이 빠질 때까지 좌선을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같이 장기간의 좌선에는 법사의 지도와 도반의 호법이 필수이다.

자연 호흡 · 상태

수행할 때, '힘 빼기' 또는 '자연 호흡'이라는 과제는 결코 쉽지 않다. 수행하려는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집착(또는 취착)'을 빼라는 것인데, 이는 '자아(에고ego)' 의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힘 빼라'는 것은 '나(자아)를 빼라'는 말과도 같다. '에고'를 빼고 '자연 상태의 나'를 관(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숙달되어야 가능하다. '자연 호흡'이란 잠잘 때의 호흡과 유사하다. 그때는 의식은 없고 무의식만 있는 상태다. 이렇게 자아의식이 쉬는 상태에 자연 호흡으로 전환된다. 자아 의식은 '내가 있다'는 착각(치癡)을 바탕으로 갈애(탐貪)와 분심(진瞋)으로 나타난다.



내가 나를 내려다 본다. Copyright 강소연

수행 초기 자꾸만 들어가는 '힘'

'자아'와 연관된 집착서 비롯돼

수행 초기에는 이 같은 집착으로 상체에 긴장이 몰려 상기병이 오기도 하고, 또 무조건 오래 버티다 보니 허리와 고관절에 관절통을 앓기도 했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 환경 탓에, 무조건 열심히 또는 맹목적으로 잘하려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다. 긴장을 인위적으로 풀 때면, 그것과 동시에 몸을 지탱하던 풍대(風大)도 빠져 버려 좌선을 유지할 수 없거나 혼침으로 들어가 집중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연', 유지가 관건

사마타이건 위빠사나이건 자연 상태의 수행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마타의 경우, 몸에 힘이 빠져야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자연 상태로 몸이 이완되어야 '몸의 정화'가 일어난다. 몸의 정화가 일어나면 '삼매'로 들어갈 수 있다. 위빠사나의 경우, 있는 그대로의 '오온' 관찰을 목표로 한다. 자연 그대로의 '법(法)'을 보면, 그것의 본질인 '무상·고·무아'가 드러난다. 그런데 '오온'이 아니라 '오취온(五取蘊)'으로, '취착(取着)'이 개입된 상태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법의 현상을 볼 수가 없다.

'힘 빼는' 다양한 방법

'힘을 빼던' 아니면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하던 수행을 반복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게 된다. (1)하늘에서 스스로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조감도 시점에서 바라본다. (2)바탕자리(허공)로 의식을 전환한다. 바탕자리의 큰 시점에서 나를 관조하면, 자의식이 작동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 이에 자동으로 힘이 빠지고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

또 자연 호흡 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호흡을 세는 수식관을, 호흡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다. 호흡이 안정되면 집중점에 집중을 살포시 갖다 얹는다. (2)'나는 잠을 자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한 마리 짐승의 숨소리처럼 새근새근 저절로 풀무질되는 가죽 푸대(몸)를 본다. 의식의 개입 없이 내버려 둔 자동적인 숨 상태이다. (3)들숨날숨의 전 과정(처음-중간-끝)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렇게 숨의 전체를 보아도 바로 자연 호흡으로 전환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③ 내 몸에 맞는 영양제 고르는 방법

내 몸에 맞는 약은 '스스로' 고르자

"약사 양반, 약국에 이거 있는가?"

가끔 약국에 방문하시는 어르신이 다짜고짜 내 눈앞에 핸드폰을 들이민다.

제품의 형태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아른거린다.

'벌써 노안이 온 건가. 어디선가 본 제품 같은데… 잘 안 보이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사진이 흐리다.

"아버님, 사진을 너무 흔들리게 찍으셨는데요.."

문제는 내 눈이 아니라 어르신의 수전증이었다.

아니면 대충 사진을 찍어 전송한 어르신 친구분의 무심함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가까스로 알아본 사진 속의 제품은 생약 성분으로 된 협심증 치료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었다.

"내 친구가 이게 그렇게 좋다던데!"

"어떤 점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던가요?"

"몰라~ 그냥 좋데!! 친구 딸래미가 사준 건데 나도 한 번 먹어보래~."

"아버님, 이건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답답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숨쉬기가 힘들 때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일반의약품이에요. 그냥 막 드시는 영양제가 아니에요. 심장에 문제가 없는 분이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잠도 잘 오고 편하다고 하더라고! 하나 줘. 그냥 하나 줘. 나도 먹어보게~."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약국에서 자주 찾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 바로 내 친구가 먹는 약에 관한 것이다.

위 예시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박카스는 아주 유명한 피로회복 드링크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레보도파라는 성분의 약을 복용 중인 누군가에게는 약의 효과를 줄여 병의 증세가 깊어지기도 한다.

편하게 복용하는 비타민C 역시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위장장애나 구토,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사람, 모든 증상에 좋은 약이란 세상에 없다.



Copyright Freepik

사람마다 맞는 약은 '천차만별'

지인 추천 말고 약사에게 묻길

사람마다 가진 질병이 다르고 몸의 상태가 다르기에 모든 병을 치료 가능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각자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다르고, 유전적인 이유로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이나 고질적인 질병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것은 고혈압일 수도 있고, 고지혈증일 수도 있고, 당뇨일 수도 있다.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도 단순히 어깨가 잘 뭉치거나, 담이 잘 걸리거나, 배탈이 자주 나는 등의 불편함이 바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넌지시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양제를 비롯한 약은 각각 성분과 조성이 다른데 그 성분들이 자신의 질병과 영양학적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딱 맞는 약이다.

그러나 나에게 알맞는 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합한 약이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지인의 추천으로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국에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설명하여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을 것이 좋지 않을까?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구매할 때는 세 가지 정도만 미리 생각하여 약국을 방문해보자.

첫째, 내가 어떤 종류의 불편함을 느끼는가?

예) 잠을 깊게 못 자고 피로감이 심하다.

둘째, 내가 평소 어떤 질병이 있으며, 어떤 약을 복용 중인가?

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셋째, 내가 이 제품을 복용함으로 인해 향후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가?

예) 잠을 푹 자고 생활에 활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미리 생각하여 약국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에게 딱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경험에 귀를 팔랑거리기보다는, 내 몸이 나에게 전하는 말에 진중히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린 친구의 경험과 추천이 그리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주식 투자 경험에 빗대어 이미 몸서리치게 알고 있지 않은가!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전법 일기

염불하던 견공 천룡거사 내생엔 부처님 제자되길

대구 비슬산 용연사는 8대 적멸보궁으로도 유명하지만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용연사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는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도 특효다. 이와 더불어 용연사에는 특별한 명물 마스코트 '천룡거사'가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스님들과 차담 중 강아지를 키웠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당시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강아지 새끼를 알아보라는 선배스님들의 지시가 있었다.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사무장의 도움으로 인터넷으로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사람을 찾았다.

대구공항 인근 작은 마을에서 만난 주인은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풍산개 강아지 한 마리를 추천해 줬다. 용연사로 돌아오니 강아지를 좋아했던 대중스님들 이미 마중 나와 있었다. 대중스님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제 가족이니 행복하게 살자" "절집에 왔으니 염불공부하자" 등의 인사를 남겼다.

논의 끝에 강아지의 이름도 정해줬다. 그 이름이 바로 '천룡(天龍)'. 이생에서 복을 지어 축생에서 벗어나 다음 생은 사람의 몸을 받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겼다. 며칠은 낯가림 때문에 기를 펴지 못했던 천룡이는 대중스님들의 사랑 덕분에 사찰 생활에 120% 적응을 완료했다. 부처님 품안에서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난 천룡이는 어느새부턴가 용연사를 찾는 등산객과 불자들에게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됐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생활해서인지 천룡이는 스님을 곧잘 따랐다. 스님이 법당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염불을 외울 때면 법당 앞을 서성이다 아예 법당 안에 들어와서 좌선하듯 자세를 취했다. 어느 날부터 새벽예불 전 도량석에 동참하기도 했다.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천룡이는 법당 안 스님 좌복 옆에 앉아 예불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다.

물론 법당을 관리하는 보살에게 천룡이는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다. 스님들을 위해 깔아놓은 좌복 위에 천룡이가 누워 흙과 털로 더러워지니 좋아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천룡이는 법당 보살의 호통에 쫓겨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중스님들은 우리 천룡거사에게 전용 좌복을 마련해 예불에 참여토록 했다.

천룡거사는 염불도 곧잘 했다. 신기하게 절에 신도 가족의 제사가 있는 날이며 천룡거사는 법당을 떠나지 않았다. 제사 담당인 필자가 염불하면 천룡거사는 허공을 바라보며 "우~우~우" "엉~엉~엉" 반복하면서 염불을 따라했다.

불교교리 가운데 하나인 윤회는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기 전까지는 나고 죽는 중생의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이다. 사람들에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 도리를 다하고 더불어 잘사는 이번 생은 전생의 결과면서 다음생의 예고편임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

천룡거사는 2012년 겨울,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천룡거사여, 이번 생엔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다음 생 꼭 사람으로 태어나시게나. 기다리고 있겠소!



명진 스님
파계사 총무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⑬ 오장설과 우파니샤드

사물 사이 질서를 바라보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 인간은 어떻게 이해됐을까? 부처님 당시는 중기 우파니샤드 시대에 속한다.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오묘(奧)한 뜻(義)을 교시하는 오의서(奧義書)와 아란야(森林) 수행과 연관된 삼림서(森林書)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 문헌들은 지고한 절대에 대한 인식을 밝힘으로써 무지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파니샤드는 인간의 본질을 다섯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였다.

피상적 속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밀한 본질에 이르는 다섯 겹의 인간의 실체는 어떠한가? 이는 오장설(五藏說)로 회자된다. 다섯 덮개(pañca kośa)는 〈타잇티리야 우파니샤드〉와 〈파잉갈라 우파니샤드〉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후 14-15세기 불이일원론 학자인 비드야란야의 〈판차다쉬〉에서, 그리고 16세기의 수행자인 사다난다의 〈베단타사라〉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오장설이 시대를 거듭하며 정론으로 제시되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장설의 첫째는 '음식의 정수인 유미죽으로 이루어진 덮개'(anna maya kośa)이다. 지수화풍의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신체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둘째 덮개는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prāṇa maya kośa)이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는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세 번째는 '감각적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mano maya kośa)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마음의 기능을 작동하여 외부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넷째는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vijñāna maya kośa)이다. 인식의 본질적 기능은 외부대상을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면을 관조하여야 하며, 지성은 불꽃처럼 인간의 내면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오장설, 생존 원리 통해 자아탐구
인간 인식과 쾌락의 원리로 귀결
사물 질서, 현대인 오만함 비판해
우리는 우주 질서 내에서 존재한다

다섯째는 '환희로 이루어진 몸'(ānanda maya kośa)이다. 인간의 내면에 깃든 본성이 우주적 본체와 다르지 않음에 도달할 때 인간은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여 환희를 향유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파니샤드(Upaniṣad)는 가까이를 뜻하는 'upa'와 아래를 뜻하는 'ni', 앉다를 의미하는 'ṣad'의 세 가지 낱말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가까이 아래에 앉다'이며 '가르침을 받기 위해 스승의 가까이에 앉는다'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스승이 제자에게 지고한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전수하는 이미지는 나아가 사물들 간의 질서 있는 배열로 이어진다. 이 배열 관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적용된 것이다. 가시적인 물질성의 존재로부터 미묘한 인식주체의 희열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계차적 배열로 분석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음식과 관련한 생존의 원리에서 출발한 자아탐구의 길인 오장설은 인식과 쾌락의 원리로 귀결된다. 고대의 지혜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은 우리 시대의 첨단기술 분야에도 일정한 빛을 줄 수 있다. 사물들 사이의 질서라는 관점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우주와 생명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가 오만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도록 한다. 현대인은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존재이기에 앞서 우주와 생태 안에서 하나의 사물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수현 스님 속환사바 하소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수현 스님이 1월 25일 오후 원적에 들었다. 수행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법이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설 연휴를 시작하는 시기였기에 조용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

세속의 나이로 올해 84세, 법납 71년. 1954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남석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동학사 비구니불교전문강원, 동국대 불교학과 등에서 수학했다. 1974년 세납불과 서른여섯에 동학사 주지를 맡았다. 학인들이 배고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이뤘다.

스님은 세상과도 거리를 두지 않았다. 중생을 외면하지도 현실과 단절하지도 않았다. 불교사회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족적을 남겼다. 1981년 종단 최초의 어린이집인 서울 낙산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했고 이후 불교계에서는 미개척분야였던 복지시설 수탁을 이뤄냈다.

바깥 활동 중에서도 안양 안흥사 불사도 이뤄냈다. 눈에 보이는 불사만이 아닌, 판자촌이 즐비했던 안흥사 주변 이웃들을 돌보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멈춤없는 원력이 있었기에 불교복지를 개척하는 와중에도 안흥사를 도심 속 포교도량으로 우뚝 세울 수 있었다.

수현 스님은 생전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성과는 자신이 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에게는 그저 부처님 제자된 길을 가는 과정이었다. 그 속에서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았고, 부족한 곳에 주춧돌이 되며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 보였다.

중국 북송의 학자 사마광(司馬光)은 "경서(經書)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수행이었든 연구였든 각자 처절한 길을 걸어가지만 실천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 입춘을 앞두고 입적한 수현 스님이 더욱 그리운 이유다.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환사바를 기원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로 잃은 오른손…
손보다 가족 생계 걱정에 눈물

네팔인 차파카인 고팔 씨, 분쇄기에 오른손 절단
일 할 수 없어 가족에게 생활비 못 보내는 상황
손보다 가족 생계가 더 신경 쓰이고 막막한 현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원효 스님의 지혜가 간절하다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겨울 내내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이쪽 편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며 저쪽 편이 맞다고 고개를 주억거리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옳다고 강요하고 섣불리 우길 일은 아니다. 무엇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안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조건인가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는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처럼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고 그것이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1400년 전,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내었던 원효 스님이 이미 답한 바가 있다. 화쟁이라고 하는 답변이다.

화쟁(和諍)! 서로 부닥치고 대립하는 주장을 화회(和會)시킨다는 말이다. 서로 대립하고 마침내 갈등을 불러오는 주장을 화회하는데 이르게 된 상태를 화쟁(和諍), 무쟁(無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결과로 이르게 된 사회의 상태를 우리는 공존 그리고 공생의 사회라고 부른다.

그런데 원효 스님이 말한 화쟁은 무조건적인 조화, 무조건적인 양보, 무조건적인 대립의 종식을 말하지는 않는다. 원효 스님이 말하는 화쟁은 엄밀한 세부적인 조건을 요청한다.

화쟁의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대립되는 각자의 주장이 동일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목표가 동일하지 않은 주장과 방법론이 접점을 가질 가능성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 대한 불교적 해법 '화쟁'
화쟁, 3단계 거친 디테일 있어
솔직함 성취할 때 공존 가능해

정치권력의 획득이 목적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의 획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존·공생의 조건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 두 목적에서 양자는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화쟁의 두 번째 단계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각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합목적적인 인과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연기법적으로 정당한가의 검증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더 선명하다.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이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연결고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 자체가 오류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 된다.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릇되었기에 파척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른바 파사(破邪)의 대상이다.

세 번째 단계가 진정한 화쟁이다. 대립되는 두 주장이 연기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일 때, 그리고 주장의 목적이 동일할 때, 그 대립되는 두 주장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조건에 따라 주장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관점에서 보면 옳은 주장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주장이 된다.

대개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이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보살이 갖추어야 할 열 가지 곧은 마음(直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핵심은 솔직함이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 스스로에게 솔직한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솔직한가이다. 그 솔직함을 성취할 때 공존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거기에서 공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400년 전 원효 스님의 지혜가 더욱 간절해지는 지금이다!

정치 편향성, 뉴스 회피 야기한다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뉴스 회피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때 스트레스, 분노,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러한 감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뉴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뉴스미디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 회피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곧, 언론이라는 공적 기관이 사회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위기에 처해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뉴스 이용 행태 변화와 뉴스 회피〉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뉴스 회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의 70%가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뉴스 회피의 가장 큰 원인은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갈등 보도, 사실 검증이 부족한 단순 대립 구도의 기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보도 방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적집단면접 결과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정치적 논쟁 중심의 뉴스와 부정적 사건·사고 보도를 가장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낮아,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뉴스 신뢰한다" 응답 25%뿐
래거시 미디어도 이젠 선택지
독자 신뢰 구축 등 혁신 필요

25%에 불과했다. 뉴스가 개인에게 무관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역시 뉴스 회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인들조차도 이러한 뉴스 회피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스스로 뉴스를 회피한 경험이 있으며, 일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정치 뉴스를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뉴스 형식과 포맷이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대체 정보 채널과 비교할 때 뉴스의 전문성과 심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뉴스 회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은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 뉴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원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심층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보도를 지향하고,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보도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뉴스의 개념과 이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SNS와 커뮤니티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 또한 뉴스로 인식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더 이상 독점적인 뉴스 공급자가 아니며, 단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뉴스의 개념과 소비자의 행태가 급변하는 언론 생태계에서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다. 신뢰를 회복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생만물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찰나 변화한다는 진리를 언론은 잘 새겨야 한다.

社 說

한국불교 흥기 기회, 놓쳐선 안된다

2024년은 단연 불교의 해였다. 소위 '힙한 불교' 열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참선 수행하고 염불하던 이미지의 불교가 아니었음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불교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에도 이를 분위기를 이어갈 모양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이 된 책으로 불서 〈초역 부처의 말〉을 꼽았고, 블랙핑크 출신 가수 제니가 신곡으로 불교적 메시지가 담긴 'ZEN'을 발매해 화제가 됐다. 특히 제니의 'ZEN'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가사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를 찾아 공유하는 등 그 파급력이 상당해 눈길을 끈다.

반응도 폭발적이다. 팬들은 "불교의 '선'을 제목으로 하고 가사에서도 불교적 내용을 담은 제니의 신곡 〈ZEN〉에 압도 당했다" "불교책을 읽어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MZ세대, 알파세대가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의 호응과 관심을 어떻게 지속하고, 불교 신행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다. 높았던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단순히 1회성 유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세대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불교 흥기(興起)의 기회이다. 이 같은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아쉬움 남긴 부석사 관음상 환지본처

서산 부석사의 관세음보살님이 647년 만에 부석사로 돌아왔다. 서산 부석사는 1월 24일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 이운·고불식을 봉행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간 부석사 설법전에서 친견할 수 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1330년 부석사 불상을 조성했다는 복장 결연문을 토대로, 고려 말기 왜구들의 약탈에 대마도로 옮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한국인 5명이 대마도 사찰에 침입해 관음상 등을 훔쳤고, 이후 인터폴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이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다.

원소유주가 부석사임이 확인되며 서산 부석사는 2013년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제자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리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일본 측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충남 지역 불교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음상의 환수를 추진할 뜻을 내보였다. 설정 대종사는 고불식 법문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 32가지로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지본처도 마찬가지다. 환수의 원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열릴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2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2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2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5 신상

어싱 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어싱 '겨울용'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